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09.08

www.airforce.mil.kr Vol.374

공군

Monthly Magazine Air Force

기획특집 1
과학화 훈련장비 ACMI체계 소개

기획특집 2
RODEO 2009에 참가한 대한민국 공군

만화로 보는 공군역사 상징인물3
빨간마후라의 표상 김영환 장군(상)

저물 무렵

저물 무렵 그애와 나는 강둑에 앉아서
 강물이 사라져서 쪽 치는 한 귀퉁이를 적시는
 노을을 자주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틀 다말도 없이 꿈쩍도 차켜 않고 있었지만
 그애와 나는 저무는 세상의 한쪽을
 우리가 모두 차지한 듯싶었습니다
 얼마나 아늑하고 평화로운 날들이었는지요
 오래오래 그렇게 앉아 있다가 보면
 양쪽 볼이 까달도 없이 화끈 달아오를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붉은 노을 때문인 줄로 알았습니다
 흘러가서는 되돌아오지 않는 물소리가
 그애와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동안
 그애는 날이 갈수록 부쩍 말수가 줄어들어 가는 것이었고
 나는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는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리만 손가락으로 번신의 어깨를 짚어가며
 강물이 적시고 갈 그 고장의 이름을 알려주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량이었습니다
 강물이 끝나는 곳에 한없이 펼쳐져 있을

여태 한번도 기쁘지 못한 큰 바지를
 그애와 내가 건너야 할 다리 같은 것으로 여기서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날마다 어둠도 빨리 왔습니다
 그애와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하고 생각하며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늘 어찌나 쓸쓸하고 서럽던지
 가시에 찢린 듯 가슴이 따끔거리며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애와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술을 포개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애의 여린 숨소리를
 열 몇 살 열 몇 살 내 나이를 내가 알고 있는 산수공식을
 아아 모두 삼켜버릴 것 같은 노을을 보았습니다
 저물 무렵 그애와 나는 강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물들이던 어린 노을인 줄을
 지금 생각하면 아주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 안도현, 「저물 무렵」, 「그대에게 가고 싶다」, 푸른숲

■ 안도현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시 당선.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당선. 시집 「서울로 가는 전봉준」 「모닥불」 「너에게 가려고 강을 만들었다」 등이 있다.

■ 시 해설

우리가 어린 노을이던 날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저물 무렵 강둑에 나란히 앉아서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는 자신이 안타깝기만 하던 날들의 풋풋한 사랑. 그애와 건너야 할 바다. 그애와 살고 싶은 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가슴 따끔거리던 날들. 처음 입술을 포개던 날 들었던 여린 숨소리와 열 몇 살 열 몇 살 내 나이를 우리는 오래오래 잊지 못합니다. 오늘이 칠석입니다. 지상에서 못 이룬 사랑이 하늘에서라도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부디 지상에서도 아름답게 사랑하시길. - 시인 도종환

CONTENTS

2009.08

www.airforce.mil.kr Vol.374



표지삽입 : ACM체계를 활용하여 훈련 중인 29전대 장병들

표지사진 : 김윤해 사진작가

공군 August 2009 No.374

발행일자 | 2009년 7월 31일(통권 제374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전) 김규진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기용호

디자인·인쇄 | 국군인쇄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04 부대동정 _ 흉상에 담긴 순직父子조종사의 충혼
- 06 기획특집 1 _ 전투조종사 정예화를 위한 과학화 훈련장비 ACMI체계 소개
- 11 책마을 _ 당신이 희망입니다
- 12 Hot Clip! _ 심도깊은 소통으로 하나된 공군 만들기
- 14 기획특집 2 _ RODEO 2009에 참가한 대한민국 공군
- 18 이등병이 쓴다 _ 친구 같은 선임! 친구 같은 후임!
- 20 참모총장 스케치
- 22 World-Wide Vision _ 더 크게, 더 우수하게
- 26 e-Sports, <ACE> _ 공의 경기를 본다는 것
- 29 Beauty 바이러스 _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10가지 상식
- 32 공군은 지금
- 36 창군 60주년 특집 7 _ 만화로 보는 공군역사 상징인물3, 김영한 장군(상)
 - _ 8월의 공군역사
 - _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 44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존 어빙의 소설과 영화
- 46 Bird Alert! _ 소쩍새
- 49 Preview _ 8월의 문화행사
- 50 생각하는 그림 _ 교훈과 조연에 귀 기울이자
- 52 전재인의 일상차반사 _ 한국의 다성 초의선사와 차문화의 성지 일지암
- 54 우리, 건강합시다 _ 더위에 지친 몸을 재충전시켜 주는 모관운동
- 56 Letters to the Editor _ 2009년 6월호를 읽고서



홍상에 담긴 순직父子조종사의 충혼

원고자의 편집실 사진 상사 김경률 | 공군본부 공보과

임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부자(父子) 조종사 고(故) 박명렬(공사 26기) 소령과 박인철(공사 52기) 대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홍상이 모교인 공군사관학교 안에 세워졌다.

(사)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등 민간단체 2곳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홍상을 제작, 공사에 기증한 부자의 홍상은 각각 높이 70cm, 폭 1m로 조각가 김지훈 씨가 두 조종사의 모습과 전투기가 하나된 '기인동체(機人同體)'의 모습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유족과 동기생, 사관생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홍상에 담긴 고인의 넋을 기렸다. 박 소령의 부인이자 박 대위의 어머니 이순신 씨는 “부자가 곁에 없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홍상으로 만들어져 오래 살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고 주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박명렬 소령은 F-4 팬텀기 조종사로 1984년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에서 저고도 사격훈련 중 순직했다. 박 소령의 사고 당시 다섯 살 꼬마였던 박 대위는 ‘빨간 마후라’의 꿈을 키워오다 2000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했다. 애초 반대하던 가족들도 박 대위를 이해했고 아버지를 이어 전투기 조종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비행훈련을 마치고 제20전투비행단에 배치된 해인 2007년 7월 20일 박 대위는 서해안 상공에서 KF-16 요격훈련 중 목숨을 잃었다.

부자의 안타까운 사연은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지난달 초에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소설 「리턴 투 베이스(Return to Base, 기지로의 귀환)」가 출간되기도 했다. ㉠



추모사

하늘을 지키다가 순직하신 故 박명렬 소령과 그 아들 故 박인철 대위의 영전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전시의 평시를 구분하기 어려운 공군의 경우, 훈련과 전투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故 박명렬 소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겨냥했던 훈련 표적은 곧 전시 표적과 같은 것이며, 故 박인철 대위가 창공을 누비며 연마했던 훈련기동은 곧 실전기동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저 파란 하늘을 지킬 수 있었고 하늘을 지키기에 바다와 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부자 조종사의 희생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 짐을 스스로 짊어진, 故 박명렬 소령의 구인정신을 우리는 높이 받들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순직할 때에, 엄마 품에서 겨우 말을 배우던 아들이 자라나서 아버지가 남긴 말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처럼 그 하늘을 지키겠다고 나선 아들의 용기와 결단을 널리 널리 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들의 높고 큰 뜻을 듣고, 눈물을 삼키면서, 오히려 격려해주신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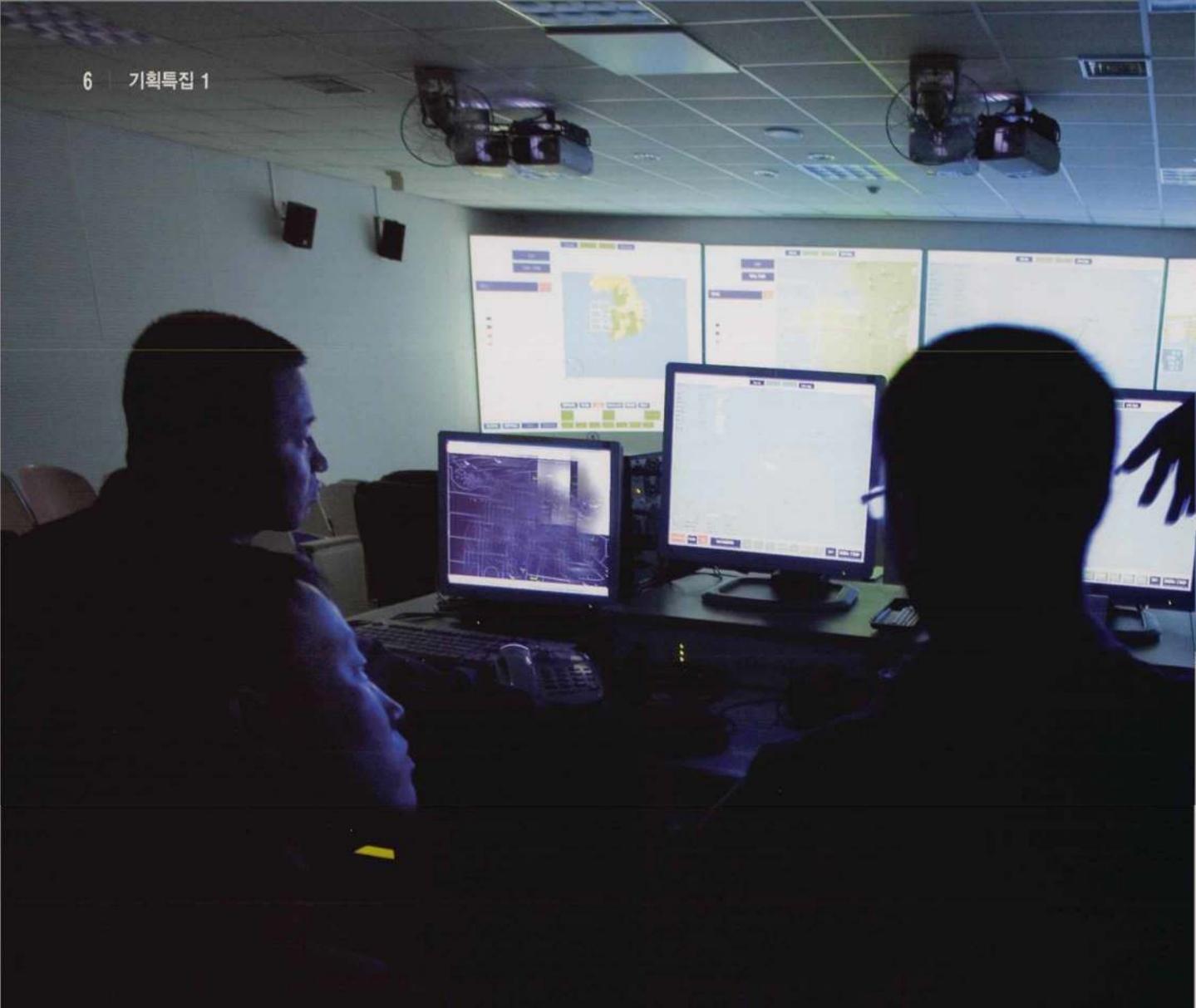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한 詩人は 진지를 사수하다가 숨진 구인을 바라보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찾아, 남김없이 후세에 전하려 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정성을 모아 여기 공군사관학교 교정에 대를 이어 우리의 영광을 지키다가 순직하신 부자 조종사의 흉상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을 듣기위해서입니다. 마음 갈아서는 저 지붕위로 솟아오르게 하늘처럼 높은 좌대에 이분들의 흉상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와 더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이곳을 찾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현대 무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의 생명은 젊은이들의 의지와 구인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키워낸 그 사회의 文化입니다. 이 교정에서 심신을 연마하는 생도들이 아버지와 아들 조종사의 구인 정신을 이어 받을 것입니다. 이곳을 찾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늘을 지키겠다고 나선, 아들의 용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이 한 어머니의, 자식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을 배워 깊이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부자 조종사의 흉상을 낮에는 해가 밤에는 별이 더 밝게 비춰주기 바랍니다.

- (예) 육군대장 김 재 창, 한국국방인보로럼 공동대표 -





전투조종사 정예화를 위한 과학화 훈련장비 ACMI 체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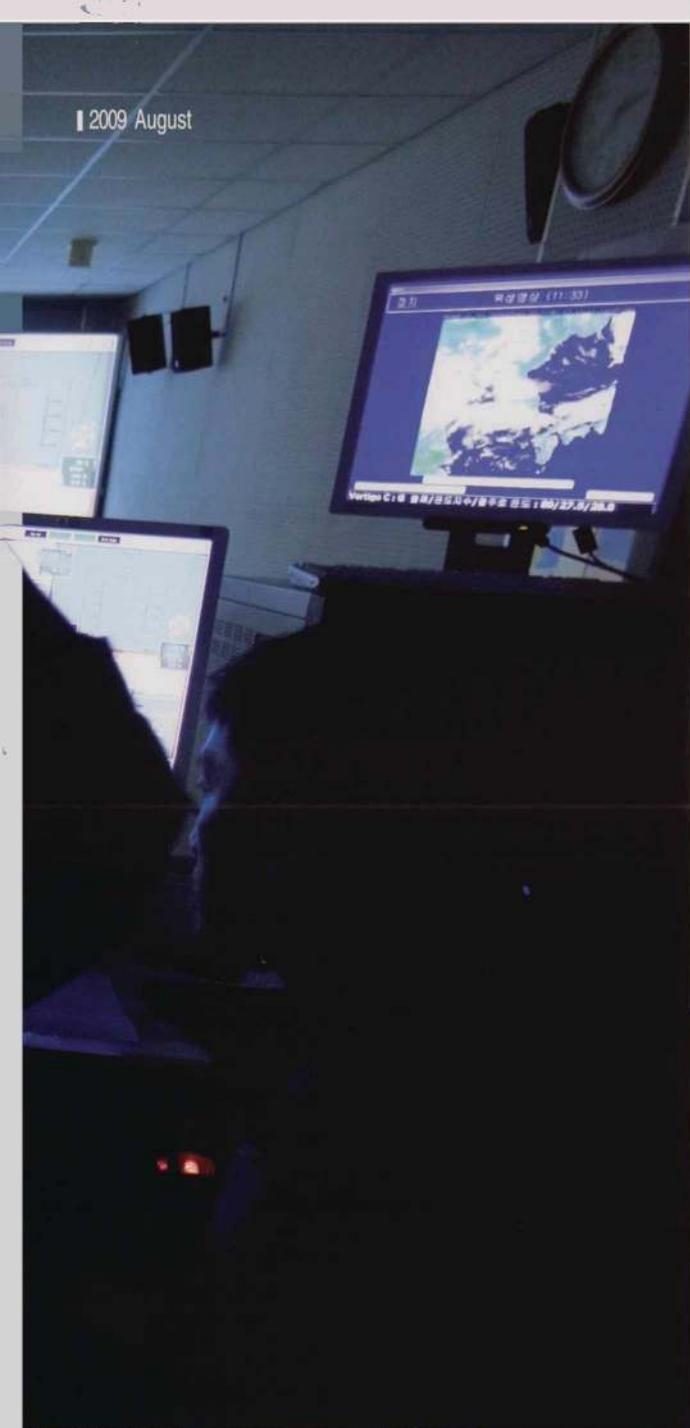
글 소령 주영진 | 29전대 공중전투훈련장운영대대장 사진 김윤해 | 사진작가

1. ACMI체계 개발 배경

미국은 한국전과 베트남 전쟁을 통해 조종사들이 최초 10회의 임무에서 살아남을 시 전투 생존율이 향상된다는 전쟁교훈을 바탕으로 1970년대 중반 공군 및 해군 전투조종사 교

육을 목적으로 ACMI(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 공중전투기동훈련장비)체계를 전력화하였다.

ACMI체계는 전투조종사들에게 실전과 같은 경험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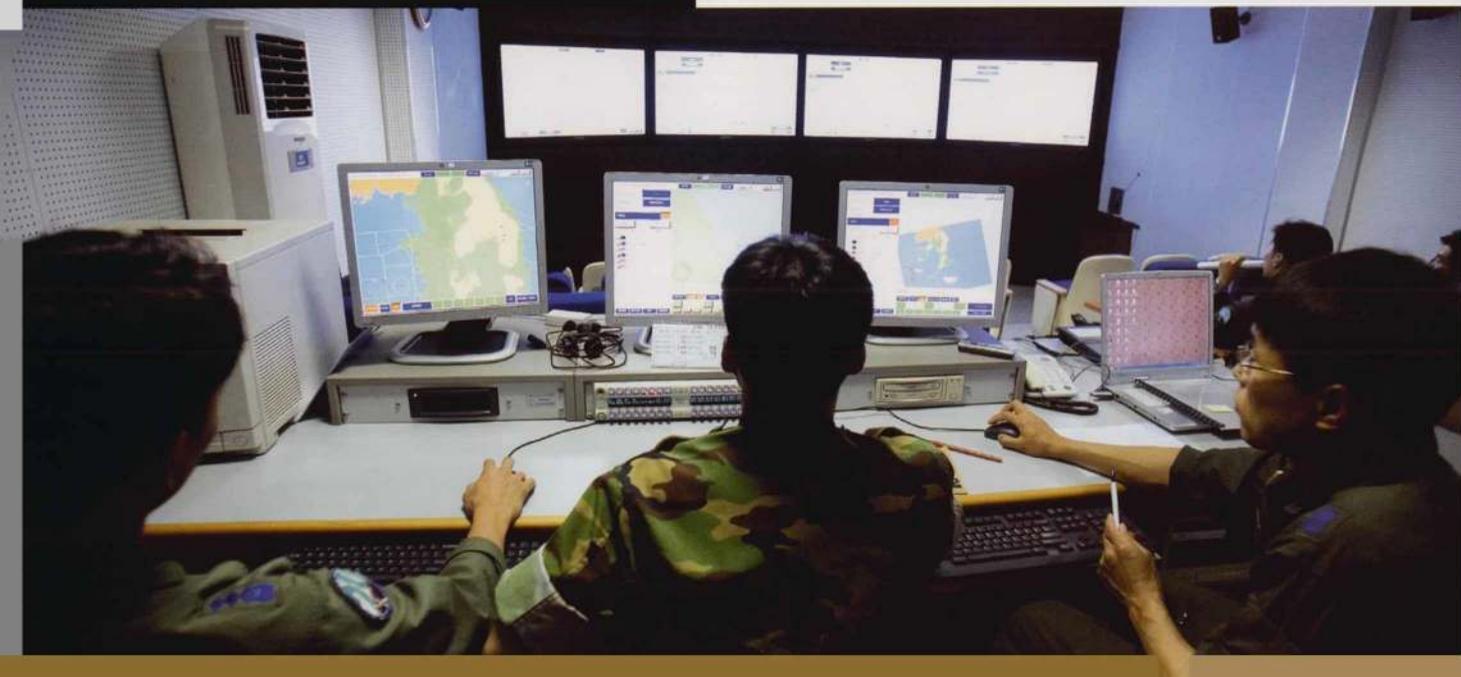


하고, 사후 강평으로 이어지는 교육환경은 생존성 향상으로 귀결되었다.

미국 국방과학위원회에서 2000년도에 발표한 훈련우위와 훈련 혁신(Training Superiority and Training Surprise) 자료에 따르면 훈련 우위가 운용 우위만큼 중요하고 '2 대 2' 형태의 전술임무 및 대규모 훈련(Red Flag 등)이 개인, 부대 및 합동군 수준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평시 훈련 상황에서 전투조종사들에게 실전과 같은 경험제공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 한국공군의 ACMI체계 운영 역사

1977년 9월 한·미 공군 참모총장의 공동협의로 1980년 3월 주한 미 공군 314사단장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구체화되었으며 한·미 공군 50:50의 투자로 개발되었다. 당시 미국 측은 ACMI 장비를 제공하였으며 우리 측은 기반시설을 제공하였다. 1982년 3월 장비운동을 위한 전자운영중대가 오산기지에 창설되었으며 1982년 6월 미국 CUBIC사 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운동을 하여 동년 12월 제공훈련장이라는 이름으로 서해 중부 태안반도 해상에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ACMI체계가 탄생되었다. 1994년 4월 제공훈련장을 한국공군이 인수하여 단독 운영하게 되었으며 2000년 2월 한·미간 협의된 제공훈련장 공동 사용기간 종료에 따라 CUBIC사 장비는 운영을 중지하게 되었다. 2002년 12월 신형 ACMI 장비를 설치, 훈련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체계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자운영중대는 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예하 공중전투훈련장운영대대로 재탄생하여 현재의 ACMI체계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는 ACMI의 역사와 함께한 전투조종사의 땀과 애환을 담고 함께 호흡하고 있다.



3. 공중전투기동훈련장비(ACMI : 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란?

ACMI체계는 기동하는 항공기의 고도, 속도, 방향, 자세 등 비행자료와 가상 무장발사 및 그 결과를 지상의 시현장비에서 3차원 공중 기동상황을 실시간으로 시현하는 체계이다.

이 체계는 다양한 성능과 기능을 바탕으로 항공기 공중기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고난이도 비행임무를 가능



하게 하며 공대공, 공대지 모의무장 시뮬레이션 기능과 항공기 간 공중충돌에 대한 사전 안전경고 및 지상에서 실시간 임무통제가 가능하게 해주며, 임무 종료 후 사후 강평을 통한 비행훈련 결과 분석으로 전시 생존능력 향상 및 전술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가. 3차원 공중 기동상황 시현기능

ACMI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에 미사일형태의 Pod¹⁾를 달고 비행하며 Pod는 GPS(Global Positioning Satellite) 신호를 수신하여 항공기 위치 및 자세정보와 무장정보 등을 지상중계소(GRS²⁾ : Ground Relay Station)로 전송하고 전송된 자료는 중앙통제실(CCR³⁾ : Central Control Room)에서 종합하여 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임무통제실에 3차원 실시간 영상으로 시현된다.



나. 공대공 모의무장 시뮬레이션 기능

한국 및 북한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 무장에 대해 공대공 모의무장 발사 훈련이 가능하다. 비행 중 조종사가 Pod를 장착한 적기를 향하여 모의무장을 발사하게 되면 데이터링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훈련 상대의 기동상황을 획득, 모의무장 발사 결과와 격추율(PK : Probability of Kill) 등의 결과가 임무통제실(DDS⁴⁾ : Display & Debriefing Station)로 전송되어 시현되어 진다.

1) Pod : 항공기에 탑재하여 운영되는 장비로 GPS 신호를 수신하고 Data Link를 이용하여 항공기 정보를 GRS와 타 항공기로 송·수신
 2) GRS(Ground Relay Station) : 지상중계 장비로서 항공기 Pod로부터 수신된 Data를 DDS로 전송하는 장비
 3) CCR(Central Control Room) : GRS에서 수신된 자료를 모아서 DDS로 보내주는 네트워크 장비실
 4) DDS(Display & Debriefing Station) : 비행임무 계획, 실시간 임무통제, 임무 후 강평, 개인별 자료저장 분석 장비

다. 공대지 모의무장 시뮬레이션 기능

공대지 훈련시 실제 무장을 투하하지 않고 탄착점 산정이 가능한 기능(NDBS : Non Drop Bomb Simulation)을 구비하고 있다. 공대지 모의 무장을 투하하게 되면, 무장 투하시의 항공기 위치, 속도, 자세 및 투하 무장의 궤도를 계산하여 무장궤적과 탄착점이 임무통제실에 시현된다.

라. 안전정보 제공 기능

ACMI체계의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안전정보 제공 기능이다. ACMI체계에서는 기종별/임무별 안전경고 기준을 입력하게 되면 임무 중 항공기가 입력된 고도, 속도 등 안전 기준을 벗어날 경우 조종사 및 지상 훈련통제요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은 대규모 및 고난이도 훈련시 공중충돌, 지상충돌 등 여러 가지 안전 메시지를 통하여 안전을 바탕으로 한 고난이도 훈련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과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 실전적 비행 교육훈련 관리

제29전대 조종사에 대한 전문화 교육훈련체계는 편대별 전술 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기종간 2기 또는 4기 편대 단위의 교육훈련 과정과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편대단위의 전술훈련을 바탕으로 Group 단위인 Package 규모의 대규모 실전적 편대군 침투 및 방어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대단위 또는 Group 단위의 고난이도 훈련 수행을 위해 ACMI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이며 실전

적인 전술훈련 및 비행 안전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올해 공군은 최초로 대규모 항공전역종합훈련인 Soaring Eagle 훈련(2009년 4월 13일~25일)과 Max Thunder 훈련(2009년 5월 8일~15일)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ACMI체계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되었다. 또한 한·미 교환조종사로 금번 Soaring Eagle 훈련에 참가한 클레



이본 소령(F-16 조종사)은 “한국공군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항공전역종합훈련인 Soaring Eagle 훈련은 실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적의 항공전력과 전술교리를 철저히 분석한 RA(Red Air) 전문 전담반을 운영함으로써 훈련성과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과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훈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수준은 미국의 Red Flag 못지않은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훈련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ACMI체계는 실시간 3차원 훈련영상을 시현하여 안전을 바탕으로 한 고난이도 훈련을 가능하게 하며 모의 무장발사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실전적 훈련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5. 향후 발전방향

과학화 훈련은 전투 훈련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훈련장 및 장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T 기술 등 최신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구축된 과학화 훈련체계를 통해 실전적인 훈련을 수행하고 그 사후 강평까지 진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다.

공군은 체계적이며, 실전적 훈련을 가능케 하는 과학적 비행훈련시스템에 의한 훈련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공중전투훈련장 운영체계에 통합 방공체계와 연계한 지상위협을 구현하는 전자전훈련장구축사업(EWTS : 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을 추진 중이며,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훈련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중전

투훈련장 운영체계인 Live체계와 Simulator체계인 Virtual체계, War Game/C4I체계인 Constructive체계와의 유기적인 연동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9전대는 이러한 미래의 첨단과학화 훈련체계 구축을 통해 실전적이며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바탕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최정예 전투조종사를 양성”하고 향후 ACMI체계를 중심으로 한 최첨단 과학화 훈련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㉔



BOOK

당신이 희망입니다

>> 고도원 역음

▣ 중령 강성구 | 재경공보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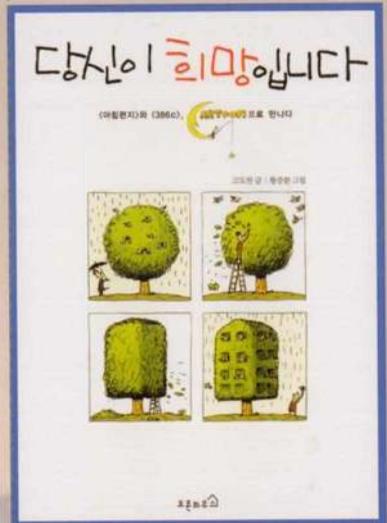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이리 은행돈 빌릴 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제가 22년 5개월을 공군에 복무했다고 나와 있더군요. 아직도 입관선서를 하던 날의 감동이 가슴 한복판에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군을 떠날 날이 성큼 다가와 있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난 군 생활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보직도 만만하게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참모총장 스피치라이터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의지와 무관하게 보임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작성되는 모든 글들이 훗날 공군의 역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압박감은 늘 편안한 숙면을 방해했습니다.

더욱이 허접한 잡문만 써보았던 제가 참모총장님의 공식 연설문, 서신, 대내외 기고문, 각종 행사의 오·만찬사를 쓰기에는 밑천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습니다. 거기다가 양은 또 왜 그렇게 많던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기본덕목이고 군대는 결과로 존재를 증명해야만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모시는 어른께서 제가 작성한 글에 감동하지는 않더라도 한숨을 쉬며 '빨간펜'을 드는 일은 없게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고 벤치마킹을 할 만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방면에 바이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을 발견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발간한 '대통령 연설문집'이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 길이만큼 두꺼운 이 책은 보통 대통령 임기 중에 대 여섯 권 정도가 발간되는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나온 연설문집의 내용들이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연설문들은 단문으로 구성됨에도 어휘와 어휘가 부딪치며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대단히 높은 호소력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이나 만찬사에서 그것을 받거나 듣는 이들이 자신들도 미처 깨닫지 못한 자신들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우아한 감동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도대체 청와대 스피치라이터가 누구인지?' 엄청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제게 '대한민국 최고의 스피치라이터'의 또 다른 이름은 '고도원'이 되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 고도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도원의 아침편지'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무려 200만명이 매일아침 기다리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해 드리는 <당신이 희망입니다>는 바로 이 고도원이라는 글쟁이



가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최고의 스피치라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 책 속에서 발췌한 인생의 잠언으로 엮여진 이 책은 삶에 대한 긍정 속에 희망을 화두로 삼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궁극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펼치고 한 시간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해 보이는 책입니다만, 마음의 눈으로 읽는다면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책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무더운 8월의 끝자락에서 이 책과 함께 보다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기를 빕니다. ㉸



심도깊은 소통으로 하나된 공군 만들기, 참모총장과 함께하는 하.계.워.크.숍

글 편집실 사진 병장 임대현 | 계룡대 근무자원단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3만 5천명 공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직접 들어보고 정책화하는 <참모총장과 함께하는 하계워크숍>이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대천공군수련원에서 실시되었다. 지난 2007년 8월을 시작으로 매년 실시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병사하계워크숍에 총 314명의 병사들이 제안에 응모하였고, 그 중 대천행 티켓을 손에 거머쥔 행운의 병사는 오직 20명뿐이었다. 계급적 측면에서, 공군의 최하위계층인 병사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참모총장에게 직접 공군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참모총장과 함께하는 하계워크숍>을 월간「공군」편집실에서 찾아가 보았다.

{... 휴양소를 습격한 Show Show한 제안들 ...} 역시 병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외박이었던가? 본선 무대에 올라온 병사들에게는 모두 2박 3일의 특박이 주어진다. 그래서인지 병사들이 발표한 제안들의 전반적인 수준은 기대 이상이었다. 해를 거듭해갈수록 뜬구름 잡는 제안보다는 바로 정책화가 가능한 제안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제10전투비행단의 제현민 병장은 '국가기술자격시험 e-learning 콘텐츠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장병들이 복무기간 중에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전교육 및 교재비용을 절감하고 응시자와 교관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합격률을 높이겠다는 제안이었다.

제3훈련비행단에서 온 이중훈 일병이 제안한 병사 '휴가/외박 신청 시스템 일원화' 제안은 휴가증에 대한 결재권자의 관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휴가증 결재업무에 행정적인 Man Hour(인시수)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간 자동설정 기능과 여러 장의 휴가증과 외박증을 슬롯 추가 등을 통해 윈스톱으로 결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제8전투비행단의 심원수 병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대천을 찾았다. 1년 전에 비해 노련하고 깔끔한 발표를 가졌다. 그가 제안한 내용은 출타(휴가·외박)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불법 군사자료 검색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고 그 성과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불법 군사자료를

발본색원하자는 제안이었다.

군수사 성석현 상병은 'e-피복습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간부용 e피복습이 피복판매소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사들의 e피복습은 그 자체로만 운영되는데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간부용과 병사용 e피복습을 통합하고 이를 피복판매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 줄어든 발표자, 늘어난 토론시간 ...]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존의 워크숍에 비해 본선에 진출하여 발표기회를 갖는 병사수가 줄어들었다. 30명의 병사가 제안을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20명의 병사만 발표를 하였고, 또한 수상을 하는 5~6명의 병사들이 참모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2차 발표를 했던 것이 올해는 2건의 제안만을 가지고 참모총장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기존의 워크숍을 시행하면서 드러났던 우수 제안이 과다하게 선정되고 제안내용에 대한 심층 토의 및 검증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제도화가 가능한 주요 제안을 선정하여 분야별 의제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워크숍 참가자/지휘부간 정책/제도화 관련 심층 토론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는 1차 발표를 마치고 군수사 유주영 상병이 제안한 '공군 으뜸병사 리더십함양 및 교류 증진'과 30단 노주환 병장의 '독서경영을 통한 명랑한 병영생활 조성'이란 2가지 안건을 가지고 심층토의를 하였다.

[... 완전무결한 정책화를 위한 끝장토론 ...] 행사 두 번째날, 참모총장을 비롯한 본부의 핵심참모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유주영 상병과 노주환 병장의 제안을 가지고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공군 각 부대간의 미약한 상호교류와 연대감 결여가 나타나는 현상에서 으뜸병사 제도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리더십과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상호이해를 위해 각 부대를 방문하는 등 새로운 환경을 마련해보겠다는 유주영 상병의 제안에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지고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여기저기서 보안책이 쏟아졌다. 병사들끼리 이야기가 진행되다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위원들과 참모들이 나서 함께 토론하였다. 깔끔한 파워포인트에 흥미롭고 기교넘치는 발표를 했던 노주환 병장의 제안에 대해 토론이 심화되어 구체적으로 '독서점호제도' 신설의견이 큰 호응을 받았다.

토론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한 이계훈 참모총장은 병사들과 함께 종합토의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으뜸병사 교육은 으뜸병사에 맞는 권위와 위엄을 갖추고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서경영을 군에도 입히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며, "독서를 통하여 뿌듯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스스로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조직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제안자들을 격려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간의 이해의 기회로 활용하길 당부하였다." ④

● 수상제안 ●

상	소 속	수 상 자	수 상 제 안
최우수상	군수사	상병 유주영	공군 으뜸병사 리더십함양 및 교류 증진
우수상	30 단	병장 노주환	독서경영을 통한 명랑한 병영생활 조성
	10전비	상병 제현민	국가기술자격시험 e-learning 콘텐츠 확대방안
장려상	8전비	병장 심완수	불법 군사자료 검색 마일리지 제도
	3후비	일병 이중훈	휴가/외박 신청 시스템 일원화
	군수사	상병 성석현	e-피복습 통합방안

망 망 망



최우수상 수상자 군수사 상병 유주영 이렇게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큰 영광입니다. 제안이 하루속히 제도화되어 전 공군이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이 워크숍에 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김영성 대위, 김성환 상사, 진영권 상사, 이찬구 원사, 조인동 중사님 등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심사위원 공군주임원사 김재환 평상시 우리 공군 병사들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에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심사위원 공본 군수지원처 소령 신준철 참신하고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많아 심사애 애를 먹었습니다. 당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전 공군차원에서 발전할 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RODEO 2009에 참가한 대한민국 공군

글·사진 대위 표승진 | 공군본부 공보과



7월 16일 오전, 美 워싱턴주 맥코드 공군기지 활주로. 대한민국 공군 C-130 수송기가 두 번째 훈련 비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무사히 착륙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준비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공군 C-130 수송기가 美 본토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지시간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맥코드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로데오(RODEO) 2009'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공중기동기의 올림픽', 로데오 2009

'로데오' 대회는 세계 각국의 공중기동기(수송기, 공중급유기)가 참가하여 공중기동작전능력을 겨루는 대회로

1956년 처음 시작되었다. 지난 1992년부터는 美 공군 기동사령부(Air Mobility Command) 주관으로 맥코드 공군기지에서 2년마다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지난 1994년, 1996년, 2000년, 2007년에 이어 올해 5번째로 참가했다.

올해 로데오 대회에는 총 8개국¹⁾이 경기에 참가하고 17개국²⁾은 대회를 참관하는 등 100개 이상의 팀과 2,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단일팀이 아니라 공중기동기를 운영하는 각 기지에서 총 50여 팀이 참가했다.

대회는 비행, 정비, 전투체력, 전술항공적하역, 지상전투능력, 항공의무후송 등 6개 분야에서 30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며, 우리 공군은 C-130 수송기로 가능한 5개 분





야(항공의무후송은 미참가), 18개 종목에 참가했다. 올림 픽에서 유도, 역도 등을 보면 체급이 나뉘 듯 각 기종별로 경쟁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공군은 C-130 수송기를 운영하는 팀들과 자웅을 가리면 되는 것이다.

로데오 이래서 로데오

19일 개회식 이후 지난 5일간을 되돌아보니 '로데오 (RODEO)' 라는 이름이 참으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과거의 '말(馬)' 과 현재 '공중기동기' 의 임무가 같으며, '말' 과 '공중기동기' 가 보여줄 수 있는 혹은 그것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뽑아 세부종목을 만들고 경기를 하기 때문이다.

美 서부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각종 대회 상징들이 주는 시각적 효과 때문이겠지만 이곳 맥코드 기지 활주로가 잘 보이는 언덕에서 보면 각 팀의 공중기동기가 주기된 주기장은 마구간처럼, 항공기를 정비하는 것은 말을 목욕시키고, 말굽을 갈아주는 것처럼, 이·착륙을 하는 모습은 말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개회식도 이런 테마를 잘 살렸다. 참가국을 소개할 때 카우보이 복장을 한 여성이 말을 타고 국기를 가지고 입장하는 장면은 꽤 인상적이었다.

한편으로는 '대회를 주관하는 美 공군 기동사령부에서 작전이나 훈련이 주는 딱딱함보다는 경연대회, 축제가 주는 부드러움으로 참가선수들이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라는 숨은 뜻으로 이런 장치를 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비행평가를 직접 참관하고 난 후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실전과 다름없는 경기진행, 이것이 로데오

공중기동기를 가지고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행임무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비행은 오후, 야간, 오전순으로 총 3번 실시했으며, 실전과 같은 위협상황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오후에는 경량 포장화물(500kg)을, 오전에는 중장비(1.5ton 무게의 목재로 대체)를 투하했으며, 야간에 실시한 인원투하에는 연합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美 육군 공수부대가 함께하였다.

로데오 대회의 평가는 비행 이륙시간을 기준으로 비행 전 정비점검, 급유절차점검, 화물적하역, 이륙, 저고도 항법을 활용한 전술비행, 정시 정위치의 인원 및 화물투하, 단거리 착륙, 비행 후 정비점검 등이 정해진 순서와 절차에 따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투체력(Fit to Fight, 개회식 종료 후 바로 실시)과 지상전투능력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Thank you, Major Kerr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상에서 로데오 대회를 봤을 때는 실전적인 전투훈련보다는 경연대회나 축제의 느낌이 강했다. 물론 이곳 맥코드 기지에 도착하고 첫 번째 사전 훈련 비행을 할 때 항공기에 탑승해 말로만 들던 C-130의 전술 비행을 체험하고, 화물투하를 직접 참관했지만 나에게 로데오 대회는 훈련보다는 보통의 '경연대회' 였다. 만일 로데오 대회의 실제 비행평가를 직접 참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비행평가 시에는 심판을 제외하고 비행에 관련없는 사

1) 한국, 미국, 독일, 스페인, 터키, 벨기에,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2) 영국,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모로코, 오만,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알제리, 나이지리아, NATO



람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첫 번째 평가였던 오후 비행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졌다. 괜히 비행과 관련 없는 내가 탑승한다고 하면 점수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다. ‘용기를 내는 자 미인을 얻는다’는 말도 있듯이 두 번째 평가였던 야간비행에서는 용기를 냈다. 로데오 대회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NVG(야간투시경, Night Vision Goggle)를 착용하고 야간전술비행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야간비행 심판은 일본 도쿄 인근에 위치한 요코다 공군기지 소속의 C-130 조종사 존 커(John Kerr) 소령이었다. 먼저 우리 비행팀에게 나의 계획을 설명하고 커 소령에게 보다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 C-130 조종사 이면서 뛰어난 영어실력으로 이번 로데오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권을 대위와 함께 갔다. 고마운 커 소령은 쿨하게 “OK! No problem!”이라고 대답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C-130 항공기에 올랐다.

월광 2%, 이륙시간 00시 50분, 착륙시간 03시 20분

7월 21일 밤. 정확히는 22일 00시 50분. C-130 수송기가 이륙했다. 달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음력 29일. 무슨 음료수 이름도 아니고 ‘월광(月光) 2%’다. 착륙예정시간은 03시 20분. 디브리핑하고 숙소에 돌아가서 샤워하면 5시. 편히 자기는 틀렸다.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을 뒤로하고 C-130 항공기가 임무지역에 진입하자 본격적인 저고도 항법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종사들이 NVG를 착용했다. 조종사들을 따라 나도 준비한 NVG를 착용했다.

녹색 세상이 펼쳐졌다. 작은 불빛도 잘 보인다. 근데 불빛만 잘 보인다. 지형지물이 어느 정도 파악은 되지만 구분이 쉽지 않다. 저고도 항법 평가는 적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전술비행을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한 경로로 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의 경우 NVG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렇게 안보이니 큰일이다.

지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가 짧는데 항공기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조종석이 바빠지고, 통신량이 많아진다. 불빛만 잘 보이는 나와는 달리 훈련된 우리 조종사들은 빠른 시간에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적의 위협을 회피하며 계획한 경로대로 비행을 한다. 통신내용을 들어도 훈련되지 않은 나는 어느 것이 도로인지 어느 것이 저수지인지 잘 구분이 어려웠는데 우리 조종사들은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하며 13개 지점을 모두 찾아 야간 저고도 항법에서 만점을 받았다.

수송기 임무는 팀워크가 생명

1~2명의 조종사만 탑승하는 전투기와 달리 수송기에는 3명의 조종사와 1명의 기상정비사, 2명의 기상적재사가 탑승한다. 수송기 임무에 있어서 팀워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조종사는 항공기 기동을 비롯해 수송기 임무를 총괄하는 임무기장인 정

조종사와 이를 지원하는 부조종사, 각종 항법장치를 운용하며 항공기가 계획된 항로로 비행하는지 점검하는 동승 조종사로 구성된다. NVG를 착용하는 야간비행의 경우에는 동승조종사가 1명 더 탑승한다.

기상정비사(Flight Engineer)는 정조종사와 부조종사의 바로 뒤에 앉아서 엔진 작동상태, 연료 소모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2명의 기상적재사(로드 마스터, Load Master)는 화물과 인원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 비행 중 화물이 안전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하며, 화물이 정확한 위치에 투하될 수 있도록 각종 장비를 조작한다. 또한, 인원 수송시에는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항공기 성능은 정비팀이 책임진다

로데오 대회기간 동안 공중에서 임무요원들이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항공기 성능은 정비팀이 책임지고 있다. '책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헌신하고 있다.

이번 로데오 대회는 오전비행과 야간비행이 아침 6시, 새벽 1시에 계획되어 어려움이 많았다. 임무 3시간 전부터 비행을 준비하고 비행을 마치면 최소 1시간 이상 비행 후 점검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고생했다.

특히, 야간비행이 있었던 21일 밤에는 이륙하기 4시간 전에 급유절차 점검을 받았고, 실제 비행지원을 했으며, 비행이 끝난 새벽 3시 20분경부터 비행 후 점검을 실시하고, 6시 30분경부터는 비행 후 점검을 평가받았다. 12시간이 넘도록 밤새 항공기 옆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게다가 이곳 맥코드 기지는 일교차가 심해 바람이 많이 부는 활주로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딸을 시집보낸 친정아버지의 마음

야간비행을 마친 항공기를 동틀 무렵까지 밤새 정성스레 정비하고 나니 비행 후 점검 평가가 시작되었다. 정비할 때 동시에 평가가 이루어지면 마음이라도 편할텐데 항공기만 혼자 남겨두고 면발치에서 심판들이 평가하는 모습을 봐야하는 정비사들의 마음은 불편하기도 했다.

정비평가는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정비사들은 초조한 지 연신 물을 들이켜고 평소엔 잘 피우지 않는 담배를 자꾸 입에 문다. 정비반장인 김작수 준위는 딸을 시집보낸 친정



아버지 같다는 나의 농담에 차라리 항공기 옆에서 함께 평가를 받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다고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정비팀은 급유절차 점검에서는 만점을 받았고, 비행 전 점검과 비행 후 평가에서도 큰 감점 없이 평가를 마무리했다.

로데오 2009, 대한민국 공군의 자신감

대회 마지막 날, 폐막식과 함께 시상식이 있었다. 발표를 앞에 두고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무려 16일 동안 가족도 못보고 제대로 된 한국음식도 구경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동료들이 힘을 낼 수 있게 꼭 좋은 성적을 받게 해달라고 했던 어제 밤의 기도가 맥코드 기지의 하늘에 전달된 것 마냥 대한민국 공군이 로데오 2009 대회에서 '최우수 외국팀상(Best International Team)'을 수상했다.

5개 분야 18개 종목에 참가한 우리 공군은 야간 저고도 항법 및 급유 절차 점검에서 만점을 받는데 이어 비행 전, 후 정비점검, 전투체력, 지상전투능력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미국팀을 제외한 외국팀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이다. 33인의 태극전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러댔고, 시상식장에 올라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었다.

2008년 벨리스 기지에서 실시한 레드플래그(Red Flag) 훈련에 참가하여 F-15K의 위용을 뽐내었던 대한민국 공군의 힘을 로데오 2009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드러냈다. 대회 기간 동안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한 준비를 위해 땀을 흘렸던 동료들이 자랑스러웠고, 대한민국 공군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2009년 7월이었다. ●

친구 같은 선임! 친구 같은 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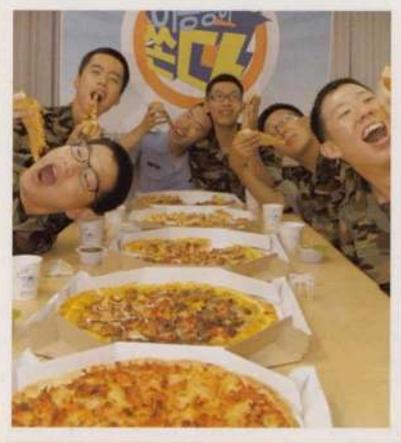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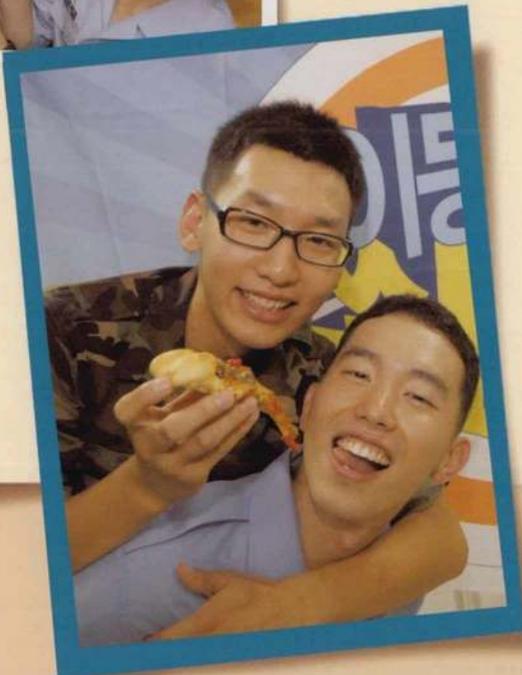


개와 고양이가 싸우듯 비가 내리던 7월의 어느 금요일,
익살스런 편지의 주인공을 만나러 제10전투비행단으로 향했다.
취재를 하는 동안 20명 남짓 되는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한 개 동은 취재를 구경하는 병사 반,
호시탐탐 피자를 노리는 병사 반이었다. 사진반 병사의 일사불란한 지휘 속에 취재는 순풍에 돛 단 듯이
진행되었고 분위기가 한참 고조되어 정점을 찍을 무렵 취재는 마무리되었다.
〈이등병이 쓴다!〉 11호점, 열광적인 분위기가 연출된 그 현장을 소개한다. 🍷

원고정의 편집실 사진 상병 오재광 | 제10비 정훈공보실



제10비 인사처 일병 가장한(673기)
이병 강동협(674기)





필승!

가장한 일병님, 강동협 이병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하자니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가장한 일병님이 저를 처음 보셨을 때의 환한 미소를 잊지 못합니다. 단본부 특성상 사무실에 병사가 적어 오랫동안 막내생활을 해야 하지만 제가 들어옴으로써 3개월 만에 끝난 사무실 막내생활에 가장한 일병님은 그저 행복한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무실의 몇 배가 되는 넓은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에 가장한 일병님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청소를 도와주시며 농담을 건네주셨습니다.

인사처 업무 특성상 인사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실수 하나 없이 일을 완벽히 해야 하는 데 처음 한 달간 매일매일 힘든 이등병 생활을 보내왔었습니다. 하지만 가장한 일병님은 낙담하고 있는 저에게 항상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축 처진 어깨에 담배 피는 횟수만 늘어나던 저는 힘차게 군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대에 처음 와서 웃지 못하고 멀뚱히 앉아만 있을 때도 가장한 일병님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다양한 개그와 이야기를 해주시며 저를 항상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창고를 청소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처음이었고 다른 분들 눈치 안보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덕분에 창고정리를 하루 더하기는 했지만.....

영외자분들은 저희 둘이 선임과 후임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같으며, 뻔질거리는 장한이에게 물든다고 멀리하라며 우스갯소리를 하시지만 그만큼 저희가 친숙해지고 군 생활 동안 서로 힘이 많이 되는 관계가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무실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어리버리해서 저 때문에 혼난 적도 많고 막내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덧 제가 인사처에 온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일과 예절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사무실에서 편히 근무 하실 수 있게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군 생활, 가장한 일병님과 함께라면 즐겁고 힘차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한 일병님! 사....사리.....사랑, 아니 그냥 좋아합니다.

'이등병이 쓴다' 코너에 훈훈한 사연을 신청하시면, 「공군」 취재진이 각 부대를 방문하여 감사하고 싶은 동료에게 간단한 피자파티를 열어드리고 그 사연을 「공군」에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 : tribune44@af.mil(인트라넷), tribune44@gmail.com(인터넷)

Hot SKETCH



◎ 조종사의 날 기념식

참모총장은 7월 3일 '빨간 마후라'의 고향인 강릉기지에서 '조종사의 날' 기념식을 주관했다.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은 올해 제2회 '조종사의 날' 기념식에는 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지휘부와 기종, 출신, 계급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 대표 조종사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축하메시지 낭독, 참모총장 기념사, '조종사의 신조' 제창, 기념공연, 군가 '빨간 마후라'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모총장은 기념식을 마친 뒤 6·25 당시 출격 조종사와 생사를 함께했던 F-51 무스타 전투기의 활약상을 기념하기 위한 '화환증정', 조종사의 전사적 기풍 조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미래 60년을 준비하는 강한 공군'을 주제로 한 토론회, 격려만찬 등을 실시했다.



◎ 러, 비행안전실장 접견

참모총장은 7월 21일 계룡대에서 '제5차 한·러 공군 對 공군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러시아 공군 비행안전실장 콜라다 알렉 미하일로비치(Kolyada O. M.) 소장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공군 對 공군 회의를 통해 양국 공군간 군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다행"이라며, "금번 회의를 통해 공군 장교간 교환교육 등 양국 공군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군사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스포츠협회장 접견

참모총장은 7월 17일 서울사무소에서 서진우 e-스포츠협회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공군 e-스포츠 팀 ACE 창단 이후 e-스포츠협회에서 후원금 지원과 주요 일간지/인터넷 등에 공군을 홍보하여, 공군의 인지도와 공군 병 지원율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공군은 '07년 4월 3일 공군 e-스포츠팀 ACE를 창단했으며, 올해 7월 말 신세대 장병의 e-스포츠에 대한 관심유도와 활기찬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병대상 「창군 제60주년 기념 참모총장배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가브랜드 위원장 접견

참모총장은 7월 14일 하늘사랑 아카데미 강의를 위해 공군본부를 방문한 어윤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 위원장을 접견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도 공군 장병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강의에 응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공군 간부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국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 크게, 더 우수하게

- 개조를 통해 새로 태어나는 공군 최대 항공기 -

원문 미 공군 (Airman) Magazine 3월 병장 J. Paul Croxon 번역 이종호 중위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C-5M 슈퍼갤럭시가 알래스카 주 Eielson 공군기지에서 육
한기 훈련 도중 눈보라를 헤치며 나아가고 있다. 이 장면은
C-5M이 최초로 육한기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C-5M
은 CF-6 엔진, 파일런 및 부가 엔진 장비, 비행 통제, 착륙
기어, 및 압력 계통을 갖추고 있다. 또한 최하 화씨 영하 25
도에서도 24시간 버틸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 미 271,000파운드와 81명의 병력을 3,200마일 이
상 수송할 수 있는 C-5 갤럭시에 추가로 개조를 수
행한다는 것은 그것의 크기만큼이나 위압적이다. 이에 많
은 개조 인력을 훈련시키는 일, 그리고 압도적인 규모의 무
기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개조하는 일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인다. 이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
업을 현재 공군 요원들이 수행하고 있다.

향후 수년에 걸쳐, 항전, 엔진 및 기타 개조를 통해 C-5
항공기는 더욱 우수한 성능을 갖춘 항공기로 변모할 것이
다. 이미 예비 C-5 항공요원 훈련을 한곳에서 실시하여 교
육생들이 표준화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현역과 주 방위군
및 예비역 공군 요원 간 통합된 기반을 마련하여 개조 과제
의 절반을 수행한 셈이다.

개조 혹은 퇴역

1969년과 1989년 사이에 제조된 C-5 갤럭시는 여타 항공
기가 수송할 수 없는 대규모의 화물을 적재 및 수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항공기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항상 조기
퇴역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90년대 후반, C-5
항공기에 대한 수명 연구가 진행되었고 C-5 기체 수명의
80% 정도가 남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미 공군 동원사령
부가 항공기 현대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모든 C-5 항공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C-5 현대화
프로그램은 통상 두 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C-5M 슈퍼 갤
럭시로 알려진 항공기 세 대는 두 단계 모두 적용 완료된
상태이며, 이 중 두 대는 델라웨어 주 Dover 공군기지에
정거 중이고 나머지 한 대는 조지아 주 Warner Robins
공군 군수센터에서 체계화된 창 정비를 수행 중이다.



항전 현대화 프로그램(AMP)은 C-5 현대화 프로그램의 첫 단계이다. “최신 통신, 항법, 감독 및 항공 통제 및 항법 안전능력을 갖추므로써 최상의 항공로 확보를 통한 항공 통제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라고 제716 항공학 체계단장인 John Artuso 씨가 말했다.

이러한 최신체계를 통해 C-5 파일럿은 Globemaster3 나 보잉747과 같이 더욱 현대화된 군사 및 상업용 항공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지상통제소와의 통신을 도와줄 신기술을 갖추고 있고, 모든 통신체계는 자동화되어 있으며, 기존 구형 항공기에서는 해상 운항 승인을 얻기 위해 직접 전화를 해야 했지만 신기종에서는 모든 것이 전자적,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현재 AMP업그레이드 훈련에 참가 중인 Darrell 중령은 말했다.

C-5 항공기는 2015년까지 약 14억 달러를 투자, AMP

체계로의 업그레이드를 단행할 것이다. 첫 번째 현대화 단계를 거쳐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52 AMP로 개조된 갤럭시 항공기를 C-5M 슈퍼갤럭시로 개조하게 된다. 신뢰도 향상 및 재엔진시동 프로그램(Reliability Enhancement and Re-engining Program)으로 알려진 본 개조는 추진체계 및 70여 개의 불안정한 체계, 구성품 및 구조물의 교체를 포함하며, 신뢰도, 지속성, 가용성 및 항공기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본 재고사항들은 총 소유 비용 및 운영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General Electric TF-39 엔진을 상업용 off-the-shelf GE CF-6 엔진으로 교체하는 일이다. 이 최신 엔진은 더욱 더 소음이 적을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기존 상승률보다 58% 강한 추진력을 제공해 준다. 이로써 더욱 더 높은 고도에서의 C-5M의 운영 또한 가능해졌다.

기타 향상된 기능으로는 부가 전력장비, 전기 및 유압 계통, 연료 계통, 화재진압 계통, 압력 및 공기청정 계통, 착륙 기어 및 동체 개조 등이다. Artuso 씨에 의하면, 이러한 개조사항들은 임무성공도, 상승시간, 단일엔진 상승, 소음 억제 및 배출 컴플라이언스 등을 포함하는 “검증된 성능 향상”을 이끌어 냈다. 슈퍼갤럭시 개조를 통해 C-5M는 기존 C-5보다 4에서 12퍼센트 향상된 비행시간을 갖추게 되었고 이로써 공중급유의 필요성 또한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C-5M의 성능향상은 더욱 더 짧은 활주로만을 이용하고도 제82공수사단을 노스캐롤라이나 주 Pope 공군기지에서부터 공중급유의 불필요한 절차 없이 더욱 신속하게 수송을 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Artuso 씨는 말한다.

이러한 RERP 프로그램을 통해 49대의 C-5B, 두 대의 C-5C 및 한 대의 C-5A를 2016년까지 총 77억 달러를 들여 C-5M으로의 개조가 진행되게 된다. Artuso 씨는 모든 여타 무기체계에서 그러하듯, 초기 획득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현재 모두 해결된 상태이며, 오히려 초기에 갖고 있던 전투기 전문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능향상과 함께 C-5 RERP 프로그램이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2007 미 국방장관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C-5 및 C-17 항공기의 조합이 국가 전략 공수작전 수행에 있어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그 효율성이 입증되었다.

C-5 현대화 프로그램은 더욱 더 효과적인 항공기를 탄생시킬 것이며 C-5 교육을 통해 C-5가 국내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과정을 창출할 것이다.

교육

거대한 C-5의 비행 및 운용에는 7명의 요원이 소요된다. 파일럿, 조수, 비행 중 정비 및 고장탐구를 담당할 두 명의 비행 기술자, 수화물 및 승객의 안전을 담당할 세 명의 탑재물 관리 책임자가 그들이다. 이렇듯 다양한 요원의 교육은 모두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방위군, 예비군 및 현역을 C-5요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교육의 책임은 텍사스 주 Lackland 공군기지에 위치한 예비역 부대인 제433공수단에 있다.

실내 교육은 공군에서 고용한 FlightSafety Services Corporation 강사가 이끌며 부여과제에 따라 AMP 및 기존 항공기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진다. 강사진은 대부분 이전 C-5 요원이었으며 실내 교육, 컴퓨터 기반 훈련, 항공기 및 비행 시뮬레이터와 관련한 경험담 등을 통해 교육을 이끌어낸다.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수강 난이도에 따라 교육 시간 또한 가지각색이다.

“비행 기술자 초보수강은 약 4달 반 정도입니다. 파일럿 초보수강은 약 3달 반이며 탑재물 관리책임자 초보수강은 약 2달 소요됩니다.”고 FlightSafety C-5 훈련 관리자인 Bob Starchman 씨는 말한다.

기타 분야의 일반적 공군요원과는 달리 비행기술자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교육을 받게 된다. 대부분은 정비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예외도 있다. 비행기술자들의 이러한 기초지식은, 지상에서의 정비를 수행하는 일반 공군요원과는 달리, 비행 중 발생하는 고장탐구를 담당해야 하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비행기술자는 파일럿과 선
임요원, 운전자

및 수리요원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항공기 관리의 또 다른 단계이지요.”라고 델라웨어 주 Dover 공군기지 소속이자 이륙 전 항공기 정비를 담당한 Michael Smith 병장은 말한다.

교육은 그 속도와 내용의 깊이에 있어 교육생들에게는 고단하게 다가온다. “지금까지는 아주 빠빠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라고 오하이오 주 Wright-Patterson 공군기지의 Jason McClanagan 병장은 말한다.

공중에서의 갤러리 관리 외에도 제433공수단 강사들은 갤러시의 이륙 방법 또한 파일럿에게 교육한다. 숙련된 파일럿과 신참 파일럿 모두 초보 과정을 수료하므로 교육생 사이에서도 실력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게 된다. 몇몇은 C-5를 처음으로 접한다. 대부분은 기존의 C-5 무기체계를 다루던 사람들로서 AMP 개조 항공기로 업그레이드 교육을 받고 있다.

AMP를 처음 배우는 일은 기존의 아날로그식 체계에 익숙해져 있는 파일럿들에게는 매우 어렵게 다가온다. 현대 항공기 파일럿 및 공군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파일럿 교육생들은 ‘우리 조종석’에서의 비행 조종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여태껏 우리 조종석에서 비행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조종석 비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좀 어려운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 라디오 작동 방식이 다른 구형 차와 신형 차에 앉아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결국에는 라디오를 작동할 수는 있지만 신형 차의 디지털 방식 라디오를 작동시키는 데 적잖은 시간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라고 Dane Horstmann 중령은 말한다.

시뮬레이터 혹은 조종석의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강사들은



록히드 마틴사의 두 번째 완벽 현대화 항공기가 조지아 주 Dobbins 예비역 공군기지에서 11월 17일 첫 비행을 하고 있다.



C-5 갤럭시 항전 현대화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 이를 통해 최신 통신, 내비게이션, 감시 및 항공통제 관리 성능을 장착함으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항전을 현대화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교체하게 된다.

한 번에 일반적으로 두 명씩 교육한다. 이는 교육 환경에 따른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되도록이면 신입 파일럿을 숙련된 파일럿과 같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숙련자로부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지요.”라고 Starchman 씨는 말한다. 그는 또 각 학생은 다른 부대에서 온 교육생들과 일반적으로 짝짓게 되며 수강 종료 시까지 그 관계를 이어 나간다고 말했다.

조종 학생들은 단순한 이륙 및 비행조종 그 이상을 배우게 된다. 시뮬레이터 내에서 방독면을 써가면서까지 위기 상황시 전술적 대응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전술훈련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라고 Brandon 대령은 말했다. 항공기를 띄우는 일은 파일럿의 몫이지만,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육군탱크와 헬리콥터를 탑재하는 일은 탑재물 관리 책임자의 몫이다. 탑재물 관리 책임자는 4명 이하로 제한되며 신입 요원과 부사관 전문가 등과 같이 다양한 조

합으로 이루어진다. 세 개의 초보수강반 중 가장 짧지만 교육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

탑재물 관리 책임자로서 28년의 현역 생활을 한 Kevin Kulig 예비역 상사에 의하면, 단기간에 이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열정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지요.”

C-5 내외부에서 교육을 받고 일하면서 기존의 뛰어난 기체에 더해지는 성능향상을 보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C-5의 성능범위를 직접 체험하고 있노라면 공중 재급유 없이도 멀리 날 수 있는 개량 C-5를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방대한 수송량 및 엔진 및 체계 업그레이드를 통해 임무 수행의 범위 또한 넓히고 있습니다.”라고 Smith 병장은 말한다. “C-5가 수용할 수 있는 방대한 장비의 양, 빠른 속도는 우리 공군의 밝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비행기술자 감사인 Don Burke 씨(좌)가 C-5 무기체계 훈련 프로그램의 교육 운용자 뒤에 앉아 지상 및 비행 중 발생가능한 일반적인 비상 절차를 시연해 보고 있다. 중앙 및 오른쪽은 훈련을 받고 있는 비행기술자 교육생 Nicholas McFadden 하사(중앙)와 Patrick Hansford 병장(우)



제 356공수대대의 선임 비행기술자인 Troy Meridith 원사가 교육 장소에서 항전 현대화 프로그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활성화 사진 및 쌍방향 체험 도구를 활용한다. 텍사스 주 Lackland 공군기지에서는 최초로 최신 C-5 갤럭시 비행자격시험을 제공함으로써 예비군의 유일한 공식 훈련 부대를 운용 중이다.



콩의 경기를 본다는 것

글 대위 유선의 | 방공포병사령부 정훈공보실 사진 Fomos

난 원래 이렇게 잘 돌아서는 사람인지

이것은 한 전향자의 고백이다. 90년대 말에 나는 하루키를 읽었고,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던 2005년쯤, 나는 그의 소설들을 전부 다락에 올렸다. 딱히 별다른 의식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나는 소설이 거대담론만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며 또한 세계화에 맞설 민족문학의 가치를 믿지도 않는다. 그저 군대와 사회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고 연애에 거듭 실패한 뒤, 나는

감각이나 감수성에 기대기보다 경우를 따지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의 소설들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것 뿐이다. 아직도 대전에 있는 부모님 집 다락에는 누렇게 변한 그의 소설 십여 권이 뒹굴고 있을 터이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상실의 시대, 양을 찾는 모험, 일각수의 꿈... 그렇게 나는 등 쪽으로 20대 초반의 문을 닫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다. 하루키에 한창 미쳐 있던 2000년대 초반, 나는 임빠(임요환의 골수팬)

었다. 나와 같은 부류의 임빠들은 임요환의 승리 공식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임요환에게 맞설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되, 결국에는 임요환에게 패하는 라이벌을 만들어내야 했다. 그것을 충족시켜 준 것이 임진록(임요환 v. 홍진호)이다. 홍진호를 좋아하는 콩빠(홍진호의 골수팬)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그 당시 나는 홍진호를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임빠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콩까(홍진호의 안티)가 되었다. 하지만 공군에이스가 생기고, 그에 대한 글을 쓰고, 스타크래프트 전반에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물타기가 되었다. 이제 임빠로서의 나의 사명감은 부모님 집 다락에 하루키와 함께 덩굴고 있다.

아주 가끔은 임요환의 경기를 다시 기웃거리보기도 했다. 하지만 최초의 30대 프로게이머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혹은 e스포츠의 아이콘으로서 명성에 부합하는 경기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인지, 승리를 위한 경기보다 보여주기 위한 경기를 하는 것 같은 그의 경기에 예전만큼 편치가 않았다. 연패 끝에 골리앗 업그레이드로 결국 마재운을 이겼을 때도 저렇게까지 고집스럽게 스타일을 추구해야 하나 하고 중얼거렸고, 5할 본능 세리모니를 볼 때는 그냥 채널을 돌리고 말았다.

이제와 콩빠가 되겠다고 한다면

콩이, 입에게 3연속 병커링을 당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임빠였으니 속으로는 '좀 너무한데' 하면서도 '당한 사람이 바보지'라며 입의 승리를 스스로 합리화하는 동시에 동료 임빠들과 함께 입을 찬양했었다. 똑같은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했던 것이 할 게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반드시 또 통할 거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고 또 수많은 연습과 사유 끝에 나온 것이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임빠도 콩까도 아닌 지금에 와서 그 경기를 생각해 보면, 그런 평가는 임뿐 아니라 콩에게도 유효한 것이었다.

결과야 어쨌든, 병커링이라는 확률 낮은 전략에 한 차례 당했다고 해서, '또 할거야'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우승에 누구보다도 목말라 있을 콩이, 분명 입을 맞아 각고의 노력 끝에 준비해 온 전략들이 있을 것인데 그 전략들 중에는 '일단 병커링 막고'라는 공식은 없었음에 분명하다. 상식적으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콩은 한차례 병커링을 당해 허무하게 패했지만, 다음 경

기에서는 준비한 전략으로 입을 이길 것을 다짐하며 경기에 나섰을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또 패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커링...

두 번쯤 당했으면 세 번째는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모르는 말씀이다. 스타를 할 때는 상대방의 전략에 맞춰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준비해 온 전략대로 밀고나가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분명 그때의 경우는 준비해 온 전략대로 밀고 나가야 할 타이밍이었다. 비록 결과는 패했지만, 그것이 콩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병커링이라는 모험적인 전략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앞마당 타이밍을 늦추는 것? 빠른 스포닝풀? ... 이런 것들을 했다가는 정상적인 경기를 펼치는 입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또 병커링을 온다면, 이번엔 드론을 잘 동원하고, 컨트롤을 잘 해서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온 경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콩을 옹호한다고, '너 이런 식으로 몇 년 전까지 실컷 까다가 이제와서 슬그머니 콩빠 인증?' 이런 말도 해도 할 말은 없다. 남들에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 스스로 어떤 종류의 전향이든 그 이전과 이후 어느 쪽이 나은가라는 가치판단에 앞서는 일종의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기 때문이다. 아무튼 내가 돌아선 것은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일뿐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나보다 늦게 스타를 알고, 콩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다.

신입생들

신기한 것은 내가, 그리고 감히 일반론을 도입하자면 내 세대 중 일부가 콩까 혹은 콩빠의 세계를 졸업한 뒤로도, 신입생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라면, 콩의 경기를 찾아보고 찬양하거나 까는 행위가 우리들에겐 스타계에서 스놉(재산과 지위로 거만을 떠는 속물)한 행위일 수 있었으나, 그 이후의 신입생들에게는 전혀 유행의 첨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 정도다. 그 정도로 더 대중적이다. 또한 폭이 넓어졌다. 요즘은 콩의 경기를 중계할 때 남자보다 훨씬 열광적인 여성팬을 보는 일이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니다.

나는 임빠=콩까 공식에 의해 콩까였는데, 임빠를 졸업했으니 자연히 콩까를 졸업하게 되었고, 콩이 공군에이스에 들어오고, 그의 경기를 재평가하게 되면서 콩빠로 전향했다.

어쨌든 나는 뒤늦게 콩빠가 되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일망정)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콩은 누구고, 콩의 경기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금세 질리고, 두 번만 같은 이야기해도 짜증내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한 것일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는지, 인터넷 e스포츠 사이트에 떠도는 (우리들 사이에선) 제법 유명한 사람이 '콩의 인기는 안티팬의 역풍에 의한 과장된 허구'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측은지심이 그렇게까지 고양되어 있지 않다. 그의 비난의 화살은 전혀 과녁 근처에도 닿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택을 꺾고 700여 일 만에 승리를 거뒀을 때,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그 경기 하나로 그 주의 MVP가 되고, 수많은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았던 것은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 분명한 현상이었다. 콩의 경기가 좋고 나쁨을 떠나, 그의 경기가 어떻게 해서 2000년대 초반을 넘겨왔으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유독 콩만이 더욱 세련되고 살벌한 스타판에서 여전히 인기스타로 살아남았는 가하는 것이 그 실제적인 이유와 같은 것일 수 있다.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박태민의 운영 이후, 아니 마재운의 운영과 공격의 조화 이후 저그의 3해처리리는 당연한 빌드가 되어버렸고 '난한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 초반부터 한방만 노리고 안되면 지는 허접한 운영취급을 받으면서 투신(박성준)을 제외하고

는 한동안 부자스러운 저그들이 득세했었다. 그러나 요사이 빠른 스포닝풀을 가져가면서 초반 흔들기를 즐기는 명수·찬수 형제가 저그 상위권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뮤컨으로 무장한 이제동이 스타판을 평정하면서 다시 공격적 성향의 저그가 주목받고 있다.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스타의 전략에도 유행이 있고 약점이 발견되면 몰락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스타일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스타판에서 그러한 유행의 변화가 일어나는 주기는 생각보다 짧지 않다. 어떤 하나의 전략적 패러다임이 생겨나고 인정받고 그에 대한 파해법이 나오고 또다시 그것이 강력한 유행으로 자리잡기까지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고자 하는 선수들에 의한 수많은 저항이 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 특별히 뛰어난 3~4명 이상의 선수가 새로운 유행을 동시에 선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저그전략의 유행이 공격-운영-다시 공격 이렇게 도는 동안, 최소한 6~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그 세월의 흐름을 무시한 채(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공격'이라는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한 채 또다시 자신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시기를 맞은 선수가 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단한 일이다. 오늘에 와서 콩의 경기를 본다는 것은 6~7년 전에 데자뷰처럼 겪었던 경기를 그대로 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다. ㉞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10가지 상식



▣ 상병 정 인 | 32전대 방공통제부

1. 화장품은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좋다?

아니다. 화장품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용하는 화장품의 개수가 많다면 지금 당장 화장품 다이어트를 해보자. 내 후임 중에는 건성 피부지만 짹짹한 느낌이 싫다는 이유로 비슷한 종류의 클렌저 2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지성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크림, 수분에센스, 수분크림, 트러블크림까지 꼼꼼하게 챙겨 바르는 선임도 있다. 이처럼 비슷한 종류에 명칭만 다른 화장품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불필요한 자극만 안겨줄 뿐이다. 화장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남자라면 클렌저 1개만으로도 충분한 세안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지성 피부라면 보습제 사용을 1개로 줄이거나 아예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편이 피부에는 훨씬 좋을 수 있다.

2. 여드름은 짜는 것이 좋다?



맞다. 여드름을 짜도 될 만큼 면포가 형성됐다면 짜서 고름과 피를 빼내고 압력을 낮춰주는 것이 여드름을 더 빨리 아물도록 도와준다. 이때는 소독용 에탄올(혹은 과산화수소)과 화장솜, 면봉 등을 준비하여 천천히~ 부드럽게~ 밀어 올리듯 짜주도록 하자. 이때, 짜도 나오지 않는 여드름을 무리하게 짜서는 안되며, 하루 이를 더 방지하여 경과를 지켜본다. 여드름을 없애는 근본적

인 방법은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므로 여드름 전용 화장품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피부 상태를 자가 진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블랙헤드를 짜거나 코팩을 사용하면 모공이 더 넓어진다?

아니다. 블랙헤드를 짜거나 코팩을 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면 모공이 넓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모공 속이 텅 비면서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자주 블랙헤드를 짜거나 코팩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일주일에 1~2회 정도 티슈를 손에 감아 블랙헤드를 짜거나 간편하게 코팩을 해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모공이 더 넓어지지 않으려면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T존 부위(이마와 코)를 청결히 하고 기름종이를 휴대하여 수시로 피지를 닦아내면 모공 확장을 예방할 수 있다. 피지 분비가 활발한 코 부위에는 화장품을 피해서 바르는 센스를 발휘하자.

4. 브랜드에 상관없이 여러 제품을 혼용해서 사용해도 된다?

맞다. 많은 사람들이 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같은 라인의 풀

세트를 장만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에만 맞다면 '클렌저는 A 브랜드', '스킨토너는 B 브랜드', '보습제는 C 브랜드' 이런 식으로 브랜드에 상관없이 여러 제품을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물론 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같은 라인의 제품들끼리는 서로 부족한 성분들을 보완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동일한 성분이 배합된 질감만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무시해도 괜찮을 수준이다.



5. 화장품 가격이 비싸면 효과도 강하다?

아니다. 화장품 가격과 제품의 효과는 전혀 상관없이 없다. 화장품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인은 비싼 가격의 제품에 소비 심리가 높아진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나 역시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다. 명품 가방이나 시계, 선글라스라면 비싼 제품의 디자인이 더 예뻐 보이고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 마련이지만, 화장품만큼은 예외라는 것을 기억하자! 화장품은 사람 피부마다 개인차가 심하게 엇갈리는 대상이므로 가격이 효과를 보장해준다고 말할 수 없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이라고 해도 내 피부에 맞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트러블이 나든 말든 비싸다는 이유로 얼굴에 발라 피부를 고문하지 말자.

6. 샘플은 빨리 써야 한다?

맞다. 본품 구매 전 피부에 맞는지 테스트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나눠주는 샘플은 가급적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제조일자가 표기되지 않아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내용물의 변질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심코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나오는 1~2년 전에 받은 샘플들을 이제서야 쓸 생각이라면 당장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1ml 단위로 포장되어 있는 파우치 샘플들은 개봉 즉시 한 번에 모두 사용하고, 15ml 이상 미니어처 크기의 샘플들은 3~4개월 안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선크림은 여름에만 발라도 된다?

아니다. 주름 하나 없이 탱탱하고 아기 피부같이 보드라운 피부를 가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365일, 4계절 내내 선크림

을 습관처럼 사용하면 된다. 모든 피부 트러블(주름, 기미, 주근깨, 탄력 저하 등)의 주범이 바로 자외선이기 때문이다. 자외선은 1년 내내 비슷한 양으로 지표면까지 도달하며, 흐린 날이라고 예외는 없다. 왜냐하면 구름이 자외선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크림을 여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잊지 말고 반드시 발라주자. 10년 후에 선크림을 1년 내내 사용한 사람과 여름에만 잠깐 발라준 사람의 피부를 비교해 본다면 아마 입이 썩 벌어질 것이다.



8. 비비크림은 남자가 발라도 괜찮다?

맞다. 필링 시술 후 붉어지고 예민해진 피부를 커버하고자 만든 비비크림의 원조는 독일이지만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화장품 회사마다 제각기 다른 해석으로 비비크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필링 시술 후 사용하는 진정, 커버 목적을 뛰어넘어 자외선 차단, 미백 기능성, 주름 개선, 투명 메이크업 등을 지향하는 다목적 멀티 제품으로 진화하였다. 국내에는 남성 피부 색상에 맞는 남성용 비비크림도 판매하고 있으며, 색상만 맞다면 여성용 비비크림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비비크림을 사용할 때 주의점은 얼굴 톤과 목 색깔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선 처리를 잘 해줘야 하며 화장을 지워내는 메이크업 클렌저를 구비해서 말끔하게 씻어내야 한다.





9. 피부 타입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다. 약건성, 건성, 약건성, 지복합성, 중복합성, 중성, 약지성, 약지성, 여드름성, 민감성까지 사람의 피부 타입은 대부분 이 분류 안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피부 타입'이라는 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피부 타입은 하루에도 수차례 바뀔 수 있으며, 그것은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이나 흡연, 음주, 스트레스, 심지어는 사용하는 화장품에 의해서도 변화한다. 자신의 피부 타입이 1년 내내 한가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피부 타입을 그때그때 캐치하여 적절한 스킨케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고? 예를 들면 어제 아침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보습제를 발라줬지만 오늘 아침에는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보습제 사용을 잠시 멈추는 것이다. 보습제(로션, 에센스, 크림 등)는 시도 때도 없이 바르는 필수품이 결코 아니다. 건조하지도 않은데 습관처럼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숨 막히게 만들지 말자.



10. 화장품으로 주름을 막을 수 있다?

맞다. 안티-에이징의 첫 번째 스텝은 선크림의 사용이며, 두 번째 스텝은 주기적인 각질 관리, 세 번째 스텝은 충분한 유수분 공급이다. 자외선을 확실하게 막아주지 않으면 피부는 주름으로 여기저기 패일 것이다. 또한 주기적인 각질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탈락되지 못한 각질을 제거해주면 피부 턴오버를 도와 외부로부터 손상받은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다. 끝으로 충분한 유수분이 공급되면 건조함이 해결되고 피부 장벽이 복구되어 잔주름 완화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주름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잘 웃지도 않고, 늘상 찡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보다는 더 크게 웃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서 인생을 즐긴다면 세월의 자연스런 흔적인 주름도 멋지게 보일 날이 올 것이다. ㉠



알로에 명가 '푸른화장품' 과 함께하는 화장품 이벤트 당첨자 발표

공공지 6월호에 나갔던 퀴즈 이벤트에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답은 ②번 '알로에' 였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요? 에어컨이나 팔빙수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즐거웠습니다. ^^ 드디어! 발표할 순간입니다. 아래와 같이 행운의 당첨자 10명을 소개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푸른화장품 측에서 준비해 주신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5종 세트를 택배로 우송해드리며 사서함 주소의 경우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드리니 안심하고 수령하세요.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여름 되세요!

- | | |
|-----------------|----------------|
| 충남 계룡시 전해진 (하사) | 대전 서 구 김한기(일반) |
| 대구 동 구 강주영 (중사) | 전북 군산시 정경철(상병) |
| 전남 해남군 김선정 (일반) | 대구 동 구 장효상(중사) |
| 강원 춘천시 성효창 (상병) | 충북 청원군 안새로(일병) |
| 경기 의정부 이병철 (일반) | 경기 성남시 김영균(병장) |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정비의 달인 4인방 탄생**
 군수사령부 제83정보통신정비창에 국내에서 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로 알려진 '기능장(技能長)' 자격을 획득한 군무원 4인방이 탄생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군에서 운용되는 모든 통신장비의 수리를 담당하는 정비사 노규엄 주사(6급, 38세), 권영태 주사보(7급, 39세), 박대성(8급, 38세), 유진환 서기(8급, 35세)가 바로 주인공들로 공군 내 모든 통신장비의 정비를 담당하는 83창의 우수정비사 4인방이다.

이들은 지난 6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국가 기능장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전자기기 기능장' 자격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정비 분야의 달인으로 거듭난 이들 4명은 기능장 이외에도 다수의 기능사,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자격증 총 수가 무려 27개가 될 정도로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다.

팀의 맹형으로 리더의 역할을 맡아온 노규엄 주사는 "기능장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서로 정보를 공유한 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한 달 동안 우리를 위해 주말에도 열심히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유진환 서기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 **방포교 서예동아리 작품전시회 개최**

방공포병학교(이하 '방포교')에서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예 작품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방포교 서예동아리 장병들이 전반기 동아리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연습한 붓씨 솜씨를 선보이고, 부대 장병들과 서예를 통해 더욱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계획되었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장병 스스로 활기찬 군대 문화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자는 취지로 장병들이 모든 전시회 과정을 기획·준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시회에는 전서 5점, 해서 4점, 예서 4점, 행서 2점 등 총 17종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전시 장소는 부대 장병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간부 식당 1층 로비를 선정, 작고 아담한 미니전시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장병들의 발길과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를 기획한 서예동아리 회장 백태현 원사(방포교 작전교육대대)는 "크고 화려한 전시회는 아니지만, 바쁜 군 생활에서 작은 여유만 가지면 충분히 자기계발의 기회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싶었다. 군 복무를 하고 있지만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 시간을 계획적으로 잘 활용하면 군 생활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며 전시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2009 August



◎ 제3훈비, e-스포츠대회 지역예선

7월 15일, 제3훈련비행단에서는 창군 제60주년을 기념하여 공군참모총장배 e-스포츠대회 3조 지역 예선을 실시하였다. 이번 e-스포츠대회는 장마철 및 혹서기를 맞이하여 장병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공군본부에서 아낌차게 준비한 e-스포츠대회로 전국 61개 팀이 각 지역별 4개 부대에서 개최되었다.

지역 3조 대회는 3훈비 장병뿐만 아니라, 부대 내 34전대, 52전대, 41 보급창 장병 및 교육사, 1비, 5전비, 38전대, 85창 등 총 9개 팀이 출전하여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결과 5전비와 38전대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 교육사 항공고 40기 해양훈련 실시

항공과학고 2학년 학생 145명은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통영 청소년수련관에서 심신단련을 통한 협동심과 인내심 배양 및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돌아왔다. 해양훈련 기간 중 학생들은 '놀이'가 아닌 '훈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학교에서 느껴보지 못한 자연의 소중함과 동기생들간 따뜻한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나누었으며, 해양훈련 일정 중 미륵산 환경미화회를 실시하여 자연환경을 깨끗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과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체험을 통하여 배웠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으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 작사 창설 48주년 기념식 거행

작전사령부는 7월 1일 독수리회관 칠성홀에서, 지휘관·참모 및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사 창설 48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작전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전 장병은 국가안보의 핵심전력인 작전사령부의 주역으로서,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조국 영공방위를 위한 최상의 전비태세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5전비, Mr. 상양상에 선발대회

제5전술비행단에서는 장병 및 군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향유 및 체력증진을 위해 기지전대에서 Mr. 상양상에 선발대회를 실시했다. 7월 10일, 해성관에서 펼쳐진 이 행사에는 병장 박종봉 등 병사 14명이 출전하여 그동안 가꾸어 온 몸매를 뽐냈다. 전문심사위원으로 전장용 상사, 윤종원 중사가 심사를 맡아 보디빌딩 규정에 의거한 규정포즈(7개항목) 및 자유포즈, 관객호응도 등으로 수상자를 선발하였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제16전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공연」

7월 21일, 제16전투비행단에서는 장병 및 군무원/관사가족을 대상으로 고급 병영 문화 예술 문화를 창출하고, 민·군간 유대 증진 및 장병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을 실시하였다. 지휘자(윤기연)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팀은 모차르트 교향곡(25번 1악장)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악기의 아름다운 선율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공연에 참석한 16비 장병 및 관사가족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게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잊을 만큼 멋진 공연을 선사하였다.



◎ 제8전비, 집중호우 피해지역 대민지원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7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 일대에 장병들을 투입하여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특히 장비 투입이 어려운 토사유출 농경지를 복구하는데 장병들이 발벗고나서 지역주민의 일손을 거들었다.



◎ 제15훈비, 자전거 동아리 발족

제15훈성비행단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비행단 내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한 자전거 동아리 발대식을 가졌다. 자전거 동아리 회원들은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전거 타기로 개인의 건강도 챙기고 녹색성장을 몸으로 실천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 제10전비, 학습봉사 활동

제10전투비행단은 7월 16일 부대인근에 위치한 구운중학교와 방과 후 학교 멘토링 결성식을 가지고 주 2회 학습지도 봉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9 August



◎ 제17전비, 3군 사관생도 부대견학

7월 1일,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청주기지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3군 사관학교 친선행사 중 생도들의 공군 작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방문단은 비행단 현황을 소개받은 후 비행대대, 무장 전시실 등을 견학하였으며, 전투기 이·착륙 모습을 관람하며 생생한 영공방위의 현장을 체험하였다.



◎ 제18전비, 해양훈련장 재난대응훈련

제18전투비행단에서는 동단 해양훈련장 일대에서 훈련장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 제20전비, Mistake Proofing 경진대회

제20전투비행단에서는 7월 3일 잘못된 정비 행위 및 정비절차/여건 미흡으로 인한 과실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09년 전반기 Mistake Proofing 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발표자(총 11명)의 참신한 제안 및 건의 속에 군수전대 전 장병 및 군무원이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완벽한 정비지원에 한발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다.



◎ 제38전대, 지역 어르신 초청행사

제38전투비행전대에서는 부대 인근 어르신과의 유대강화 및 협조 체제를 돈독히 유지하여 공군의 작전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초청행사를 7월 7일에 가졌다. 50명의 지역 어르신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부대소개 및 111대대 견학을 시작으로 KF-16 및 무장견학, 병사 생활관 및 기지 견학, 기념 촬영, 그리고 환담 및 만찬의 순으로 진행됐다.



1954. 3. 5. 저녁 강원도 동해안 묵호 근방



장군님!

장군님
계시면
대답 좀
해주시쇼!



중령님! 오늘 수색은 여기서 마치는
게... 이 눈보라 속에선 수색대원들까지
실종될지 모릅니다!



.....



장군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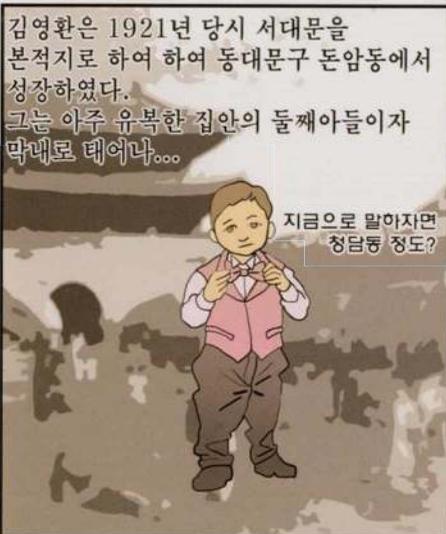
김영환
장군님...



만화로 보는 공군역사
상징인물 3

빨간 마후라의 표상
김영환 장군(상)

고 김영환 준장
(1921.1.8~195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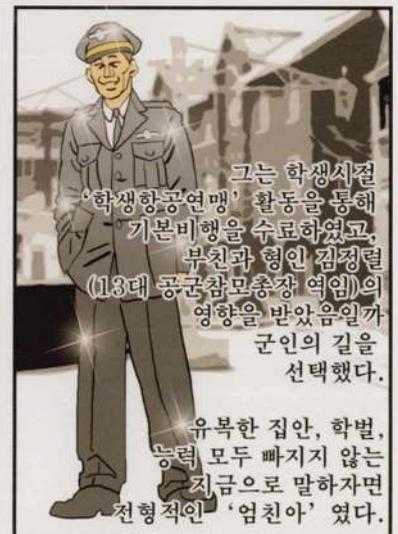


김영환은 1921년 당시 서대문을 본적지로 하여 하여 동대문구 돈암동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아주 유복한 집안의 둘째아들이자 막내로 태어나...

지금으로 말하자면 청담동 정도?



교과서만 봤는데... 공부에도 취미가 있어서 당시 최고의 명문인 경기공립중학교 (경기중/고등학교의 전신) 를 졸업. 관서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는 특히 영어과목에 출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학생시절 '학생항공연맹' 활동을 통해 기본비행을 수료하였고, 부친과 형인 김정렬 (13대 공군참모총장 역임)의 영향을 받았음일까 군인의 길을 선택했다.

유복한 집안, 학벌, 능력 모두 빠지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형적인 '엄친아' 였다.

공군 7인의 창설멤버 중 한 명이기도 한 김영환은 미 군정 통위부(현 국방부) 정보국장 대리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창설에 많은 역할을 했다.

김영환은 우리나라 공군 창설멤버 중 가장 어렸고, 34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그가 남긴 일화가 많고 또 드라마틱하다.

공군총장 김정렬장군의 집무실

따르릉!

네 공군총장 김정렬입니다.

거기 공군 본부지요?

와아...

웬 비행기 세대가 한강 다리 아래로 비행을 허는디...

이거 뭐 군사 작전같은 겁니까?

네?

미군으로부터 들어온

L-4 연락기!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비행기가 생겼군.

@@@&&&&

너석들... 좋아하기는...



김영환의 배짱이 돋보이는 일화가 여러 개 있는데, 1951년 여름 지리산 공비 토벌때의 이야기가 그 중 하나다.



김영환이 편대장으로 지리산으로 출격했을 때 김영환의 비행기가 피탄되어 삼진강변의 좁은 모래사장에 불시착하게 된다. 당시 그곳은 5000명의 공비들이 진을 치고 있는 한가운데였다.



8월의

공군역사

자료제공: 공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의 편집실

공군비행단,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1951년 8월 1일)

1949년 10월 1일, 항공인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이었던 공군독립이 실현되자 육군항공군사령부 비행부대는 공군비행단으로 승격되었고 1951년 8월 1일부로 공군비행단은 사천기지에서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되었다. 제1전투비행단은 예하에 제10전투비행전대(12/F-51, 1/T-6)를 포함하여 46대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였으나, 1952년을 기점으로 항공기 보유대수가 F-51 39대를 합하여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자 전투작전 전담비행단과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비행단 창설의 필요성 때문에 1953년 2월 15일부로 제1전투비행단은 제1훈련비행단으로, 예하 10전투비행전대는 제10전투비행단으로 각각 개편되었다.

현재 제1전투비행단은 우리 항공사의 쾌거이자 자부심인 T-50 Golden Eagle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고등비행 훈련 및 CRT(Combat Readiness Training) 과정의 운영 등을 통하여 정예 공군력 건설의 주춧돌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



사천기지(K-4) 주둔 당시의 제1훈련비행단 정문 모습

제11전투비행단 창설(1958년 8월 1일)

제11전투비행단은 1958년 8월 1일 F-86F Sabre 2개 전투비행대대(111·112대대)¹⁾를 근간으로 김포기지에서 태동하였다. 애초 제11전투비행단의 창설기지로써 수원 또는 군산이 거론되었으나 한·미간의 3차에 걸친 협의 결과 김포기지(K-14)로 확정되었으며 초대단장에 장지량 준장이 보임하였다. 창설초기 김포기지 제반 시설물 공사관계로 수원비행장에 전개기지를 마련한 제11전투비행단은 창설 후 채 1년이 안되어(1959년 6월 25일) 3천시간 무사고 비행의 금자탑을 쌓았으며 공군 최초로 비행안전관실을 설치하여 성공적인 운영성과를 입증하는 등 전투비행단으로서의 면모를 착실히 다져나갔다.

그러나 김포기지는 김포국제공항과 동일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관계로 보안유지 및 훈련에 애로점이 존재하였으며 휴전선과 너무 근접해 있어 적군의 선제 기습공격 시 초기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리적 위치에 기인한 제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군에서는 항공전력의 지역별 균형을 꾀하고 동시에 적군의 기습공격 시 전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1전투비행단을 공군 작전계획 70-7호(거진계획)에 따라 현재위치로 확정하였다. 제11전투비행단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70년 10월 2일부로 새로운 터전을 열게 되었으며 현재는 F-15K Slam Eagle을 운용하는 공군 최강의 비행단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59년 9월 15일 거행된 제11전투비행단의 부대기 수여식 행사 모습

1) 계획상에는 113대대 창설이 포함되었으나 미창설



북한공군 MiG-15(정낙현 소위) 귀순(1960년 8월 3일)

1960년 8월 3일, 고공 비행훈련을 위해 원산기지를 이륙한 북한공군 2사단 26연대 소속



1983년 4월 14일,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이웅평 대위 시민 환영식에 참석한 정낙현 대령의 모습

정낙현 소위가 자신의 MiG-15 전투기로 강원도 동해안 속초근방의 대포리 기지(속초비행장: 제트항공기 착륙 불가능)에 귀순하였다. 정낙현 소위의 귀순은 1950년 4월 IL-10 이진순 중위(당시 계급), 1953년 9월 MiG-15 노금석 대위, 1955년 6월 Yak-18 이운용 대위, 이인선 소위에 이은 4번째의 항공기 귀순 사례로 기록되었다.

정낙현 소위는 귀순 직후인 1960년 8월 8일 대한민국 공군중위로 임관하여 정보부대 기지대대장, 교육사령부 기지전대장, 공군대학 작전교육처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으며 1987년 10월 31일 공군대학 부총장(대령)을 끝으로 군문을 떠날 때까지 27년간 공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 초도비행 성공(2002년 8월 20일)

항공우주산업은 국토가 협소하며 부존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우수한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일찍이 이를 자각한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1980년대 초반 면허생산 형태로 대한항공과 삼성정밀(현 삼성테크윈)이 제작에 참여한 제공호 사업을 통해 기술적인 기반과 자신감을 획득한 우리는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KT-1 기본훈련기를 건국 이래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KFP사업을 통하여 전 세계 5번째로 F-16 전투기 생산국가로 등극하였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는 불과 20년 남짓으로 일천하지만 그러기에 또 하나의 신화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2002년 8월 20일, T-50 1호기가 초도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활주로에 안착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항공기 수출국 입성이라는 국가 항공산업의 발전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우리 공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고양하였다.



T-50 고등훈련기 초도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시험비행 조종사 조광제 중령(뒷줄 중앙)과 관련인사들이 함께한 기념촬영

평양대폭격 작전수행(1952년 8월 29일)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이 지지부진하자 UN군은 대량 공중공격을 가하여 적군의 전쟁능력과 의지를 말살



평양대폭격 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이륙 대기 중인 우리 공군의 F-51 전투기들

시키고 조속히 휴전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전략인 항공압박작전(Air Pressure Operation)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전의 일환으로 UN군은 7월 11일과 8월 4일, 평양에 대규모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8월 29일에는 공군 및 해군기 1,080대를 동원, 3차에 걸친 대대적인 폭격을 실시하여 45개의 군사목표물 중 31개를 완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평양대폭격 작전에는 우리 공군의 F-51전투기 3개 편대(총 36대)도 참여하여 미군으로부터 할당받은 평양의 2개 군사목표물(금속공장, 철도조차장 등)을 완전 파괴함으로써 한국공군의 감투정신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㉒



1



2



3



4



5



6



7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7

자료제공: 군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리 편집실

● F-4D 팬텀

1960년대 들어 북한공군은 IL-28 폭격기(순항속도 400KTS, 항속거리 1,100NM)와 MiG-21 전투기(최대속도 마하 2, 전투행동반경 450마일)를 배치하는 등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 공군은 1965년에 들어서야 F-5A 전투기를 전력화하기 시작했는데 짧은 항속거리로 인하여 MiG-21과 IL-28이 위치한 신의주비행장을 타격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장지량 총장(제9대 참모총장, 1966년 8월 1일~1968년 7월 31일)이 “김일성은 권총(拳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잭나이프(jackknife)를 들고 있는 격입니다”며 절박함을 표현할 정도로 공군 현대화가 시급히 요청되었다.

이를 위해 공군에서는 F-4D 팬텀의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B-29 폭격기의 2배, F-5A 전투기에 비해 6배에 달하는 엄청난 폭탄적재능력을 보유한 F-4D 팬텀은, 1개 대대 전력이 F-5A 3개 대대에 버금갈 정도로 당대 최강의 전폭기로 평가받았다. 이 때문에 터키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었으나 미국은 영국, 이스라엘, 독일 등에만 F-4D를 판매했을 뿐이다.

F-4D를 희망하던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은 Lockheed사의 F-104 starfighter를 강력히 권유하고 있었다. 때문에 미국의 군사원조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던 우리 공군이 F-4D 전폭기를 도입하기란 상당한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F-4D 전폭기를 향한 장지량 총장과 공군의 강한 의지를 받아들인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10월경 방한한 Cyrus Vance 미 특사와 회담을 앞두고 있던 최규하 외무장관에게 “팬텀기 지원을 받지



창군 60주년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못하면 회담을 깨고 나오라”고 지시함으로써 F-4D 팬텀 도입문제는 한·미간에 핵심쟁점으로 부상하였다.

Cyrus Vance 특사와의 회담으로 국군 현대화를 위한 1억 달러의 특별군원이 합의되자 우리 공군은 이 중 F-4D 팬텀 1개 대대(18대) 도입에 6천7백만 달러, 비행장 현대화에 5백만 달러 등 총 7천2백만 달러를 가져왔다. 전체의 72%를 공군이 가져갔으니 타군의 불만이 상당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 같은 우여곡절의 어려움을 겪고 F-4D 팬텀 1차 도입분 6대의 인수식을 1969년 8월 29일 거행함으로써 우리 공군은 세계 5번째의 팬텀공군으로 기록되었으며, F-4D 팬텀은 현재까지도 우리 공군의 핵심전력으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 T-33A 제트훈련기

Shooting Star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T-33A 제트훈련기는 우리 공군이 1955년 5월부터 F-86F 전투기를 운용함에 따라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1955년 8월 17일 10대를 최초 도입하였으며 총 60여 대를 군원으로 들여와 중등 및 고등비행훈련에 활용하였다. 일부는 공격용인 AT-33(12.7mm 기총 2정, 2.75인치 로켓 38개 장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1956년부터 1959년까지 Show Flight Team의 주력기종으로 맹활약을 펼치기도 한 T-33A 제트훈련기는 우리 공군이 T-59(Hawk) 훈련기를 도입함에 따라 1994년에 퇴역하였다. ㉞

- ① 1969년 8월 29일, 우리 공군이 인수한 F-4D 팬텀기의 웅장한 모습
- ② 방위성금 헌납기 F-4D 5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필승편대'라 명명함.
- ③ 전천후 전투 및 요격임무 수행능력을 보유한 F-4D 전폭기
- ④ F-4D 전투기 인수식을 거행함.
- ⑤ 주기장에 있는 F-4D의 위용
- ⑥ F-4D 항공무장을 장착하는 무장사들
- ⑦ 출격 명령에 따라 조종사가 신속하게 F-4D 항공기에 도착하여 탑승함.
- ⑧ F-4D 무장전시
- ⑨ 인수식을 위해 수원기지에 정렬한 T-33 제트훈련기에 동체 뒷부분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큰 태극표지
- ⑩ T-33 편대비행
- ⑪ 기본 훈련용 T-33 복좌 항공기 모습
- ⑫ 1958년도 T-33 Air Show Flight Team(곡예비행팀)이 T-33 항공기 앞에서 기념 촬영한 모습
- ⑬ T-33 훈련기로 비행훈련하기 위해 조종사가 비행기를 점검하는 모습





존 어빙의 소설과 영화



이미도
작가, 외화번역가
〈이미도의 영단어 타이틀매치〉
〈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됐다〉 지음
<http://blog.naver.com/midomiho>

작은 존 어빙(John Irving)이 1985년에 발표한 동명의 소설입니다. 미국 메인 주의 고아원을 모델로 삼은 성장소설이지요. 고아의 사회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찰스 디킨즈와 그의 명작인 〈올리버 트위스트 Oliver Twist〉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1989년에 발표한 〈A Prayer for Owen Meany〉는 종교적 주제와 신념으로 고뇌하는 캐릭터를 등장시켰지요. 너세니얼 호손의 〈주홍글씨 The Scarlet Letter〉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A Prayer for Owen Meany〉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영화가 〈사이먼 버치 Simon Birch〉입니다.

존 어빙은 1978년 〈가아프가 본 세상 The World According to Garp〉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현재의 National Book Award의 전신인 American Book Award의 최종 후보에도 올랐지요. 로빈 윌리엄스와 글렌 클로스가 주연을 맡아 영화화됐고요. 1940년대 미국, 여주인공 제니(글렌 클로스)는 종군 간호사 시절 결혼도 않은 채 낳은 외아들 가아프(로빈 윌리엄스)와 함께 삽니다. 남성우월주의를 배격하며 페미니스트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제니는 아들의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1993)의 원제는 'What's Eating Gilbert Grape?' 입니다. 우리나라 상영 제목은 〈길버트 그레이프〉이지요. 원제목의 의미는 '길버트 그레이프가 뭇 땀에 화가 난 거야?' 입니다. 여기서 eat의 뜻은 '먹다'가 아니고 '화나게 하다, 괴롭히다' 이거든요. 이 영화를 감독한 스웨덴 출신의 라스 할스트롬은 〈개 같은 내 인생 My Life As a Dog〉(1985)과 〈초콜릿 Chocolat〉(2000) 등을 만들었지요.

라스 할스트롬이 1999년에 만든 〈사이더 하우스〉는 원제가 'The Cider House Rules' 입니다. 〈사이더 하우스〉의 원

삶까지 철저히 간섭하려 들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कि가 뜨는 그녀를 위해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어머니와의 갈등은 심화되지요.

존 어빙의 최신작으로는 베스트셀러인 <The Fourth Hand>(2001)와 <Until I Found You>(2005)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간됐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번역서가 나온 <일 년 동안의 과부 A Widow for One Year> 또한 영화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다만, 소재와 성 묘사가 충격적이기도 하거니와 독서하는 즐거움을 손상시키지 않게끔 세세한 캐릭터와 줄거리 소개는 최대한 아끼도록 하지요.

해외의 평단에 따르면 '현대의 찰스 디킨즈라 불리는 탁월한 이야기꾼'인 그가 이 작품에서 채택한 소재는, 번역서의 소개 문구를 따르자면 '짧은 사랑, 오랜 기다림, 아름다운 해후'입니다. 첫 만남과 재회의 간극이 무려 40여 년에 다다를 만큼 서사적이지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작품인데요, 뉴욕 타임스는 이 작품을 가리켜 '가아프가 본 세상' 이후 가장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작품(Irving's most entertaining and persuasive novel since his 1978 Bestseller, *The World According to Garp*)'이라고 평하였습니다. 참 흥미로운 점은 이 장편 속에 등장하는 동화(작품 속 동화 작가인 테드 콜이 쓴)인 <마룻바닥의 문 The Door in the Floor>은 각색돼 2004년에 영화화됐지요. 제프 브리지스와 킴 베이싱어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혹시 기욤 뫼소의 소설인 <사랑을 찾아 돌아오다>를 읽어

본 독자들이라면 뫼소가 소개한 시와 <일 년 동안의 과부>가 소개하는 시가 같은 작품임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겠군요. 두 책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부분에 소개되는 시인데요, 윌리엄 B. 예이츠가 쓴 <하늘의 천 He Wishes for the Cloths of Heaven>입니다. 전문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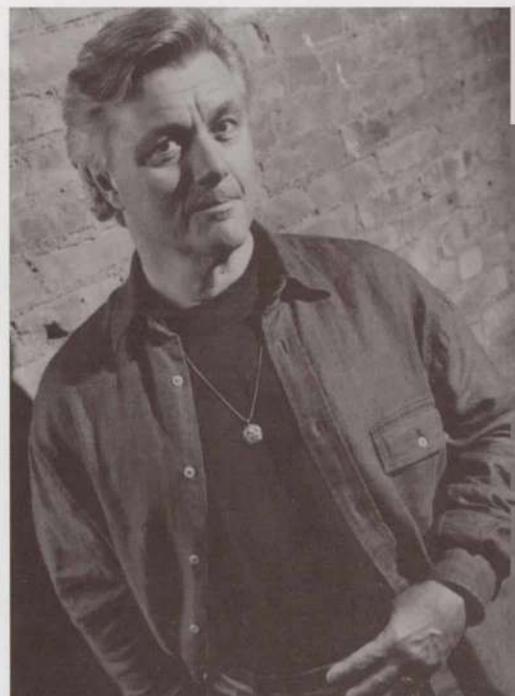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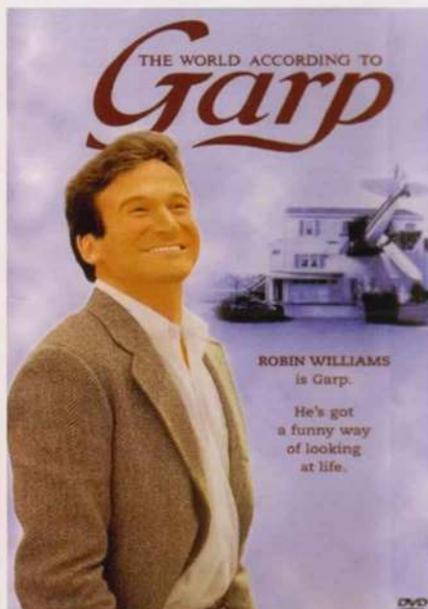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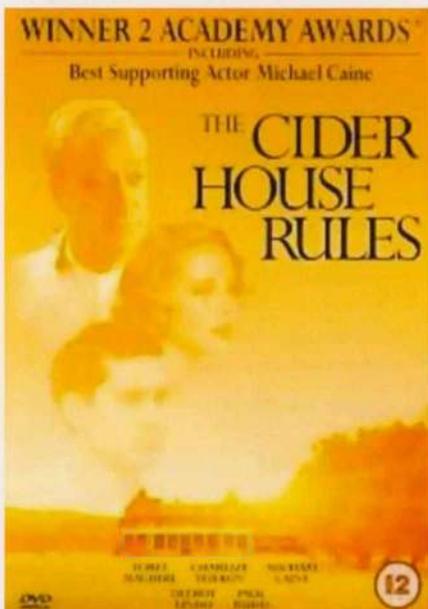
하늘의 천

He Wishes for the Cloths of Heaven

내게 금빛과 은빛으로 수놓은
하늘의 천이 있다면,
어둠과 빛과 어스름으로 수놓은
푸르고 희뿌연고 검은 천이 있다면
그대 발밑에 깔아 드리련만,
하지만, 나는 가난하여 가진 것이 꿈뿐이라
내 꿈을 그대 발밑에 깔아 드렸습니다.
사뿐히 밟으소서, 그대 밟은 것 내 꿈이오니.

Had I the heavens' embroidered cloths
Enwrought with golden and silver light,
The blue and the dim and the dark cloths
Of night and light and the half-light,
O would spread the cloths under your feet:
But, I being poor, have only my dreams:
I have spread my dreams under your feet:
Thread softly because you tread on my dreams.

이 시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작품입니다. 예이츠는 20대 초반에 만난 모드 곤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이 절절히 느껴지는 이 시의 대상이 바로 모드 곤입니다. ㉞



소쩍새



무엇인가를 노리고 있는 소쩍새

사무실에 새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사진을 가장 잘 찍는 정훈공보실의 사진반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기지지원전대 행정과 사무실에 처음 보는 새 한 마리가 날아 들어 왔다는 것이다. 사납게 생긴 새가 병사들 머리 위로 이리저리 날아다녀서 병사들이

사무실에 들어온 소쩍새가 블라인드에 매달려 있다.



사무실 파티션 위에 앉아서 두리번거리는 소쩍새



겁을 먹고 있다고 했다.

기지지원전대 본부의 정원에는 각종 나무로 조경이 잘 되어 있다. 아름다운 향나무와 단풍 나무, 그리고 봄이면 빨간 열매가 흐드러지게 매달리는 앵두 나무가 있고 건물 뒤에는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마치 숲속에 자리잡은 아담한 별장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이렇게 조경이 잘 되어 있기에 서식하는 조류들도 많고, 건물의 유리창에는 가끔 새들이 날아와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새들이 유리창에 비친 나무들을 보고 숲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사진반에 도착해서 보니 새 한 마리가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독특한 생김새를 가졌기에 천연기념물 324호인 소쩍새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하는 이 새는 지난 밤 현관 앞의 등불 아래 모여든 나방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실수로 복도까지 들어왔다가 나가는 곳을 찾지 못하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온 것 같았다.

목장갑을 구해서 안전하게 소쩍새를 잡았다. 손 안에서 소쩍새 심장의 빠른 박동이 느껴졌다.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 하나를 물렸는데 장갑을 끼었음에도 손가락 끝에 금방 빨간 선혈이 한 방울 맺혔다. 새의 크기는 멧비둘기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부리가 몹시 날카롭고 발톱은 매의 발톱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워서 맨손으로 잡으면 상처를 입기가 쉽다. 가쁜 호흡을 하며 겁에 질려있는 소쩍새를

등지가 있는 부대 밖 인근 마을의 참나무 숲에 놓아 주었다. 훌쩍 날아간 새는 참나무의 굵은 가지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서산 해미의 작은 야산 기슭에 전원주택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살고 계시는 노인부부가 있는데 이분도 가끔 전화가 온다. 새가 현관 유리문에 부딪혀서 기절을 했다고 한다. 땅에 떨어진 새들을 안타까운 마음에 손으로 살살 매만져주면 잠시 후에 깨어나서 깃털을 훌훌 털고 날아간다고 한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리창이나 현관 유리에 매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라고 당부한다. 영국에서는 숲 속에 있는 별장이나 건물의 유리창에 새들의 충돌방지를 위해서 관행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TV를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숲이 울창해 지고 있고, 그런 숲속에 별장을 짓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새가 계속해서 유리창에 부딪히는 사건이 생기자 갑자기 10여 년 전 우리 부대가 건설될 때 일어났던 작은 사건이 생각났다. 활주로 공사가 끝난 후 각종 생활 건물이 여기 저기에서 세워지고 있었는데 간부식당 옆에 있는 BX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현관에 유리창을 끼우기 위해서 문틀을 만들어 놓았는데 장난기 있는 사람들과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우리가 없는 현관의 문틀 사이로 빠져 다니곤 했었다. 며칠 후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틀에 두꺼운 유리창이 끼워졌다. 물론 그곳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유리조심'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놓았지만 며칠 동안 문틀 사이로 빠져다니는 것이 익숙해 있던 사람들 몇몇이 태연하게 그곳을 통과하였다. 마치 영화 "X맨"의 초능력자들이라도 된 것처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듯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도 유리창을 통과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새들과 사람의 시각 차이를 느낄 수 없었던 솔거가 그런 '황룡사의 벽화 노송도'의 최신판을 건물 유리창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 같다.

소쩍새의 생태

우리나라의 야산 어느 곳에서나 드물지 않게 번식하는 텃새

이다. 낮에는 숲속의 나뭇가지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저녁부터 활동한다. 소쩍새가 주로 야행성이긴 하지만 밤에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낮에도 사물을 잘 보고 사냥도 잘 한다.

며칠 전에는 맑은 대낮에 소쩍새 등지 앞을 지나가는 붉은 머리오목눈이를 순식간에 잡아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온 몸이 깃털로 덮여 있어서 날아다닐 때 소리가 나지 않아서 조용히 날개를 펴리며 날아다니는 모습이 꼭 스텔스 전투기 같다. 밤눈이 밝고 조심성이 많아서 밤에는 좀처럼 접근이 어렵고 깃털도 나무의 색과 비슷하여 평소에는 근처에 이 새가 있어도 발견이 어렵지만 울음소리는 대도시의 아파트 주변 숲에서도 들을 수 있다. 특히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소쩍새의 울음 소리를 초저녁 부터 새벽에 걸쳐 들을 수 있다. 숲에서 숲으로 옮겨 가며 우는 습관이 있으며 수컷은 솿쩍다, 솿쩍다 하고 울고 암컷은 과~과~ 소리를 낸다. 수컷이 내는 소리 중에 솿쩍은 흥년을 뜻하고, 솿쩍다는 풍년을 뜻한다고 전해 오는데 솿쩍다는 숲이 작으니 큰 숲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옛 농부들은 재미있게 해석하며 그 해의 농사를 예측하기도 했다.



소쩍새 눈에 비친 세상



나무에 앉아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소쩍새



맨의 부리를 맑은 날카로운 소쩍새의 부리



나무에서 웅크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소쩍새

식성은 주로 곤충류이며 거미류도 먹고 때로는 작은 새도 공격을 한다. 낮에는 숲이 우거진 나뭇가지에 숨어서 쉬고 있으며 동지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면 잘 날지 않고 부엉이처럼 부리를 딱딱거리며 위협을 하며 더 가까이 가면 달려들기도 한다. 번식 장소로는 딱따구리가 지난해에 사용했던 나무의 구멍을 주로 사용하며 시골 기와집의 용마루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을 사용하기도 한다.

소쩍새에 대한 슬픈 전설

소쩍새는 슬픈 전설을 가지고 있는 새이기도 하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마음씨가 고운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시댁이 찢어지게 가난도 하지만
 시어머님의 성품이 얼마나 애리고 아프던지...
 밥을 할 때마다 쌀을 아주 적게 주어서
 그것으로 밥을 지으면 식구들 밥도
 모자라는 형편이라
 며느리는 매일 굶다시피 하며
 그나마 숲에 붙은 누룽지를
 양을 많게 하기 위해 툭툭 불려서
 바가지에 담아 부엌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 장면을 시어머니가 보고

저변이 식구들은 밥을 적게 주고 자기는 많이 먹는다며
 숲이 커서 밥을 많이 짓는다고
 장날에 읍에 가서 숲을 아주 작은 것으로 바꾸어 왔답니다.

그 뒤부터 아주 작은 숲에 밥을 짓다 보니
 누룽지까지도 모두 식구들에게 주어야 할 형편이라
 착한 며느리는 슬프게도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 며느리의 죽은 영혼이 소쩍새가 되어
 시어머님은 원망하지 않고
 숲이 적어서 굶어죽었다고
 솟쩍~ 솟쩍~ 하며 운다고 합니다.

소쩍새의 퇴치

소쩍새는 주로 야행성이라 발견이 어려워서 이 새가 가지 내 숲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나마 번식시기에는 소리를 많이 내기에 소리를 듣고 서식 개체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새의 먹이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 나방종류의 곤충이기 때문에 비교적 퇴치가 간단하다. 또한 서식지가 트여져 있는 공간이 아니고 수목이 적당히 우거진 곳이기에 활주로 내에 나방을 박멸할 수 있는 약제를 적당히 살포한다면 이 새의 활주로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활주로 인접한 지역에 수목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커다란 나무는 소쩍새 뿐만 아니라 맹금류들이 나무 위에 앉아서 먹이를 노리는 장소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달빛이 밝은 퇴근길에 단본부 주변의 소나무 숲에서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서정주 님의 국화 옆에서' 라는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올 해 소쩍새가 많이 우는 것을 보면 아마 정원에 심어 놓은 국화가 그 어느 해보다도 아름답게 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



글·사진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조류담당
 현동선 준위는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기만 했던 조류를 살리는 방법으로 유도한 비행단의 조류담당자다. 운무부 교수를 도와가며 자료수집에도 매진한 바 있는 그는 현재 항공기와 조류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교본을 작성하는데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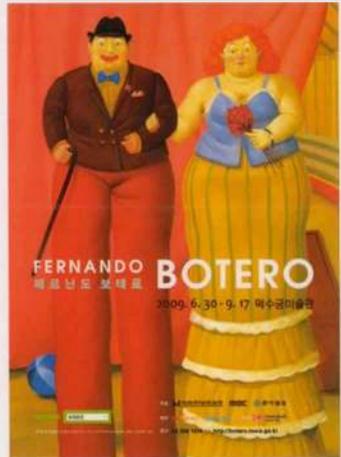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올 여름 미술관으로 피서하세요!
인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 <페르난도 보테로>展

삶의 충만함과 열정이 담긴 미지의 세계를 그린 라틴 아메리카의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가 한국을 찾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한 라틴 아메리카의 문,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재치 있는 구도와 묘사, 화려한 색채를 통해 만날 수 있다. 1932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 보테로는 풍만한 양감을 통해 인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감성을 환기시킴으로써 20세기 유파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추구한 이 시대의 살아있는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비정상적인 형태감과 화려한 색채는 인간의 천태만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시기간 중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 미술,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를 살펴보기 위한 '릴레이 강연회'와 라틴 아메리카의 뜨거운 정열과 미술적 리얼리즘을 영화로 만날 수 있는 '2009 라틴 영화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어려운 경제 여파 때문에 혹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한 시간 동안 시원하게 다녀올 수 있는 라틴 아메리카를 예매해 보는 것은 어떨까. 페르난도 보테로가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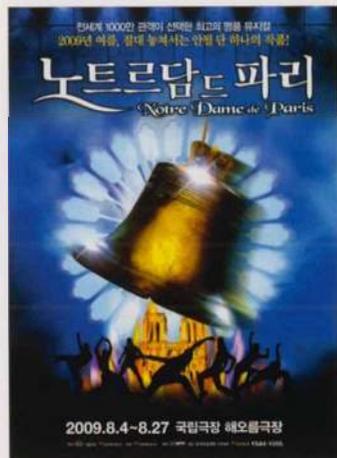
장소 서울 덕수궁미술관
기간 9월 17일까지
가격 성인 10,000원 / 중·고생 9,000원 / 초등학생 8,000원
홈페이지 <http://deksugung.moca.go.kr>



여름 밤을 뜨겁게 울릴 감동의 종소리
전세계 천만 관객이 선택한 명품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올 여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볼 수 있는 뮤지컬에는 어떤 게 있을까. 수많은 대작들이 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지만, 더 진한 감동으로 다시 무대에 오르는 <노트르담 드 파리>를 따라갈 뮤지컬은 없는 듯하다. 이번 공연은 빅 토르 위고의 원작 <노트르담의 꼽추>를 바탕으로 가슴을 울리는 멜로디, 과장하지 않고 몸의 선을 잘 활용한 안무, 지난 2년간 10개 도시에서 공연을 하며 절정에 오른 배우들의 호흡이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한다. 한 공연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2년 투여 대장정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기대해도 좋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대형 종들은 100kg이 넘는 것으로, 감옥을 상징하는 쇠창살, 움직이는 기둥과 석상 등의 무대세트와 더불어 프랑스 파리에서 제작된 것들이다. 직접 종을 타고 움직이며 노래를 부르는 과지모도의 애절함은 국내에서도 프랑스 현지의 감수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화려한 광고를 보고 티켓을 잘못 예매했다가 여자친구 혹은 잘 보여야 할 사람들에게 미안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공연은 그동안의 잘못(?)을 만회하고도 남을 명작으로 기억될 것이다. 1층에 꽃다발, 음식물 등의 짐을 보관하는 곳이 있으므로, 미리 공연장에 도착해 연인을 위한 미니 이벤트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짧은 휴가 혹은 휴일에 남을 최고의 감동을 미리 준비해보자.

장소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기간 8월 27일까지
가격 VIP 12만 / R 10만 / S 8만 / A 6만 / B 4만
홈페이지 www.ndpk.co.kr





교훈과 조언에 귀 기울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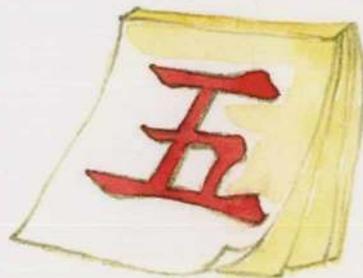
그림 김영은

◎ 일일명명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中



중국 전국 시대의 모험자로 호타와 더불어 중국에서 최고의 신의(神童)로 꼽히는 편작이 제(齊)나라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나라의 지배자였던 환공을 만난 편작은 그의 안색을 유심히 살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임금님께는 병이 있는데 현재는 피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안으로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말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강에 별 이상이 없었던 환공은 "저 부인은 돈에 눈이 멀어서 말쑥한 사람을 환자로 본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5일 뒤 편작이 다시 환공을 만나 "임금님께는 병이 있는데 지금은 그 병이 혈액 속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래도 환공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5일이 지난 뒤, 편작은 "임금님의 병은 이제 위와 장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손을 씻지 않으면 더 깊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공은 이 말에 더욱 못마땅해 하며 역시 듣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5일이 지난 뒤 편작이 환공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없이 물러났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환공이 사람을 보내어 까닭을 묻자 편작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과약으로 고칠 수 있고, 혈맥에 있을 때는 침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위장에 있을 때는 탕약을 써야만 효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골수에 이르면 귀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병은 이미 뼈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5일 뒤 환공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시켜 편작을 불렀으나 그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다른 이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한 그의 단원 귀가 부른 화였습니다. 편작은 후일 불치(不治)의 병으로 꼽았던 것이 무당의 말은 믿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귀도 닫히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려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이들은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표리를 볼어도 좁은 귀지 않고, 곡을 해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완악한 태도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림물이 됩니다. 자신을 향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건설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야말로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지암

한국의 다성(茶聖) 초의선사(草衣禪師)와 차(茶)문화의 성지(聖地) 일지암(一枝庵)

차 이야기는 동아시아 3국인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역사 속에서 모두 살펴 볼 수 있다. 중국에는 당나라 때 인류 최초의 차의 이론을 정립시킨 육우(陸羽, 733~804)가 지은 책 다경(茶經)이란 책에 차를 단순히 마시는 음료(飲料)가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데 가치를 두었다. 일본 다도(茶道) 창시자이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차 선생 센리큐(千利休, 1522~1591)의 다도정신인 화경청적(和敬淸寂)은



초의선사 동상

화(和)와 경(敬)은 차를 대접하는 주인과 손님 사이 상호간의 공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고, 청(淸)과 적(寂)은 정원과 다실, 그리고 다기에 관련된 뜻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차가 전해지면서

전통 차례(茶禮)문화에서 헌다(獻茶)와 차를 만들 때 정성을 다하는 정(精), 보관할 때 건조하게 하는 조(燥), 그리고 걸(潔)은 청결하게 다린 차를 음다(飲茶)하여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선(禪)이고 곧 도(道)였다.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와 함께 발전한 차의 역사가 조선이 건국되면서 억불숭유(抑佛崇儒)정책과 임진왜란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해져 차 재배가 어려워졌다. 농가에서 생산한 차로는 공차(貢茶)로 진상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고 민가에서 차를 마시기가 힘들었다. 그로 인해 천 년의 역사 속에서 빛났던 전통 차례(茶禮)에서 차가 술(酒)로 바뀌었고, 스님이 출가하여 공부하는 사찰(寺刹)의 총림(叢林)에서도 다도(茶道)가 사라져 갔다. 우리 차문화가 쇠퇴일로로 걷고 있을 때, 다성인 초의선사(속가명은 장의순, 1786~1866)가 전남 해남에 대흥사 동쪽 기슭에 차의 성지(聖地) 일지암(一枝庵)을 짓고 차나무의 일반적인 생장조건에서 구체적인 제다법(製茶法)과 물과 불의 선택 및 조절법 등 올바른 다도의 요체에 이르기 까지 차를 끓이고 마시는 법, 그리고 차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한 다신전(茶神傳)을 지어 우리 고유의 다도(茶道)의 맥을 잇게 했다.

1828년에는 지리산 화개동 칠불암(七佛庵) 아자방(亞字房)에서 참선하는 여가에 청나라 모환문이 1615년에 엮은 백과사전인 만보전서(萬寶全書) 가운데 채다론을 등초(謄抄)하여 1830년 45세 일지암에서 정서(正書)하였으며 다음과 발문(跋文)을 달아 제명을 '다신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은 발문을 달았다.

戊子雨祭難而於方丈山	무자우제수사어방장산
七佛亞元謄抄下未更	칠불아원등초하퇴갱
更欲正書而因病未果	갱욕정서이인병말과
修洪少爾時在待者房欲知	수홍사미시재시자방욕지
茶道正抄亦炳未終	다도정초역병말중
故禪弱強命管成子成終	고선여강명관성자성종
有始有結何獨君子爲之	유시유결하독군자위지
叢林或有趙州風而盡	총림혹유조주풍이진
不知茶道故抄示可畏	부지다도고초시가의

무자년(1828년) 비 오는 날 방장산(지리산) 칠불아원(칠불암)에 스승을 따라 갔다가 만보전서(萬寶全書)의 채다론(採茶論)을 등초하여 왔다. 일지암에서 다시 정서하고자 하였으나, 병으로 인하여 마치지 못하였다. 사미(불교에서 십계를 받은 수행자) 수홍이 시자방에 있을 때 다도를 알고자 하여 정초하였으나, 그도 역시 병이 나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다. 그래서 참선하는 여가에 정서를 다하였으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어찌 군자만 이룰 수 있으랴. 총림에는 조주(趙州, 776~896) 다도 풍(喫茶去)은 있으나 다도를 다 알지 못하므로 베껴서 보이는 것이 감히 외람된 일이다. 경인년(1830년) 눈 내리는 봄에 일지암(一枝庵)에서 화로를 안고 정성을 다해 쓰다.

정조(正祖) 사위 해거도인(海居道人) 홍현주(1793~1865)가 다도를 알려 줄 것을 명하여 동국(조선) 차(茶)를 칭송하는 칠언(七言) 31송(頌) 시(詩)로 차사(茶事)를 기록한 동다송(東茶頌)을 헌종 3년 1837년에 지었으며, 동다송(東茶頌)의 마지막 송에서 밝은 달과 흰 구름을 벗 삼아 차를 마시는 차인의 높은 도(道)의 경지를 감상할 수 있다.

明月爲燭兼爲友	명월위촉겸위우
白雲鋪席因作屏	백운포석인작병



1 일지암에서 빚은 차떡
2 일지암의 유천
3 다신전 원본

竹籟松濤俱蕭涼	죽뢰송도구소량
清寒瑩骨心肝惺	청한영골심간성
惟許白雲明月爲二客	유허백운명월위이객
道人座上此爲勝	도인좌상차위승

밝은 달 촛불 삼고 또한 벗 삼아서
흰 구름을 방석하고 병풍으로 하니
대숲 소리 솔 물결 모두 다 함께 시원하니
맑은 기운이 뼈에 스며 心肝을 깨우네.
흰 구름 밝은 달 손님으로 맞음에
도인의 이 같은 자리 도인이라 한다네.

이것은 초의선사의 차 생활은 혼자서 차를 마시는 그 신(神)의 경지이며, 손님이 자연의 밝은 달과 흰 구름을 마주해 맛보는 차 맛은 승(勝)의 경지를 떠나 흰 구름을 방석으로 하여 다도삼매(茶道三昧) 경지에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차인들은 오늘도 차 성지(聖地) 일지암을 찾아 초의선사 영정에 헌다(獻茶)하며 대한민국 차인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첫 교과서로 '다신전'을 선택하고 있다. ❶



글·사진 준위 전재인 | 제1진투비행단
전재인 준위는 차례(茶禮)문화 연구와 전통 다도(茶道)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한문으로 된 다신전을 사적으로 표현한 (사적으로 읽는 다신전)을 출간했으며, 생활 속의 일제식민 잔재 청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위에 지친 몸을

재충전시켜주는 모관운동

▣ 이희주 | 홍익요가연구협회 회장

요가를 공부하다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동양의학과 유사한 점이 제법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 흥미롭습니다. 요가의 터전 또한 같은 동양권이다 보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가의 개념 중에 '나디스(nadis)'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나디(nadi)의 복수형으로 말 그대로의 뜻은 통로, 관(管), 도관이며, 인체에서는 우리 몸의 생명력이 흐르는 에너지통로를 뜻합니다. 요가에서는 대략 72,000개의 나디스가 있다고 하며 그 중에서 중요한 3가지는 수습나-나디(susumna-nadi), 이다-나디(ida-nadi), 핑갈라-나디(pingala-nadi)입니다. 수습나-나디는 척추를 타고 올라 정수리에 이르는 중앙통로로 가장 핵심적인 나디이며 이다-나디와 핑갈라-나디는 각각이 음과 양의 통로로서 수습나 주위를 소용돌이처럼 나선형으로 휘감고 돕니다. 나디스는 우리의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기의 통로인 경락(經絡), 기맥(氣脈)과 비슷한 개념으로 동양의학에서는 오장육부에 따른 12경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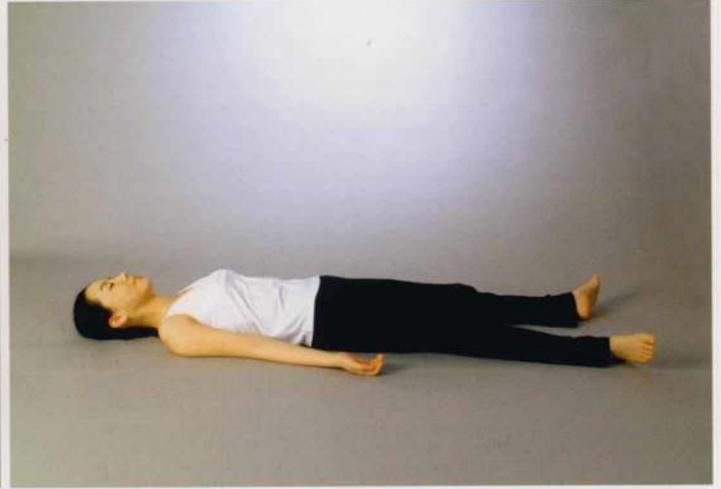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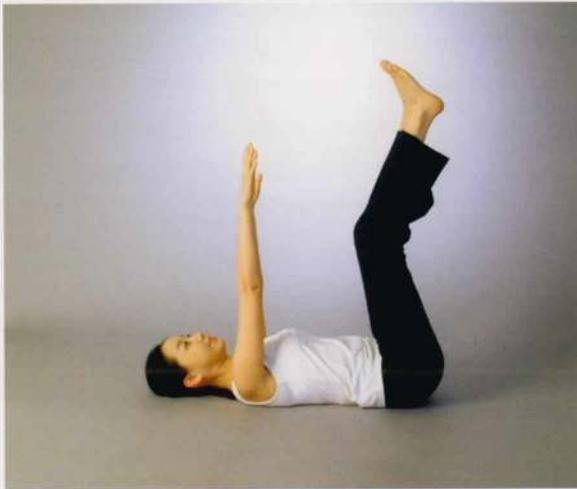
그런데 이 3개의 나디스가 만나는 지점을 '차크라(chakra)'라고 하는데, 이 또한 요가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차크라란 말의 1차적인 뜻은 '원, 원반, 바퀴'이며 건강과 요가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 센터'라는 뜻으로 우리 몸에 7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양의학의 단전(丹田)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

다. 동양의학에서도 우리 몸의 에너지 센터를 표현함에 있어 불을 '단'자를 쓰듯이 차크라에 모인 육체적이며 물리적인 힘을 요가의 불(火), 곧 요가수련을 통하여 고도의 정신적 에너지로 변화 성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7개의 차크라 중에서 여름철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배꼽부위에 있는 마니푸라 차크라(manipura chakra)로서 동양의학의 하단전(下丹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마니푸라는 우리 몸의 항문과 심장 사이의 신체를 이루는 불의 요소이며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상복부신경총의 부위에 해당하며 비장과 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위장에서 소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마니푸라의 불(火)로써 음식을 데우고 태우는 과정을 소화로 보며 여기에서 나는 빛은 따뜻한 생명 에너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찬 음식을 많이 먹는 데다가 습하고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세균이나 병균의 번식이 활발해져서 음식이 쉽게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기 쉽습니다. 올해는 윤 5월이 있어서 여름이 일찍 찾아오고 또한 많이 무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하더니 과연 예상대로이지요.

아직 더위가 남은 8월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마니푸라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만이라도 반드시 배를 덮고 자는 것이 좋으며 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입안에서 많이 씹어서



체온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삼키면 위장이 충격을 덜 받아 배탈이나 설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고 자제심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이런 생활습관을 심어주는 것은 평생 건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무덥고 지쳤을 때 다음의 모관운동을 잠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포 사이사이의 독소와 찌꺼기를 뽐어내어 짧은 시간 동안 재충전이 될 것입니다. ㉞

〈모관운동(capillaries movement)〉

☒ 방법

1. 등을 대고 누워서 두 팔과 두 다리를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들어올립니다.
2. 손가락과 발가락 끝부터 미세하게 덜덜 떨면서 진동을 온몸에 퍼뜨립니다.
3. 30초 정도 떨다가 팔다리를 동시에 바닥으로 툭 떨어뜨립니다. 이때 손등과 발의 바깥쪽 복숭아뼈가 바닥에 닿게 떨어뜨립니다. 동시에 입을 벌려서 후련하게 숨을 내쉬 다음 그대로 누워 몇 번 더 후련하게 숨을 쉽니다.
4. 위의 1~3의 과정을 3~5번 긴장이 풀릴 때까지 되풀이 합니다.

☒ 효과

1. 몸과 마음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줍니다.
2. 세포 사이사이의 독소와 찌꺼기를 뽐어내어 피로회복에 좋고 몸이 재충전됩니다.
3. 저린 증상이나 부기가 있을 때에도 좋습니다.

※ 본 사진은 <요가,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이희주 저, 2003, 물병자리)에서 저자의 허락하에 사용한 것으로 무단전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Letters to the Editor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하게 된 대한민국 공군의 요람, 공군사관학교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예 공군 장교를 배출하는 공사로 그 위상을 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나 전투기의 가장 큰 위협 대상 중의 하나가 바로 '새'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활주로 내에서 새 퇴치를 위한 방법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도 안산시 김다희 -

#2

〈HOT CLIP〉에 20여 년 전, 저도 고무동력기 날리기를 했던 기억이 나게 해주는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으로 프로펠러를 돌려 팽팽하게 고무줄을 감아 하늘 위로 날리면 맘갈지 않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모형비행기가 야속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열정을 펼치는 교사가 있기에 아이들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문막초교 꿈나무 어린이들 파이팅입니다!!!

- 강원도 홍천군 정은주 -

#3

'아주 특별한 선생님들의 특별한 하루'란 제목의 교관의 날 기념행사를 해마다 스승의 날에 개최하고 있다니 끈끈한 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호에는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안전수칙 같은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월간 「공군」을 보고 신뢰가 생겼습니다.

- 울산시 남구 고진영 -

#4

이번호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은 글이 있다면 〈Bird Alert!〉에 '어부와 갈매기'입니다. 처음에는 몇 마리밖에 보이지 않던 갈매기들은 어디에서 모여들었는지 순식간에 커다란 무리를 만드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다음호에서는 동물이 아닌 따뜻한 사자들이나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남 여수시 라윤 -

#5

〈책마을〉에 흥남 철수작전을 소개한 '기적의 배' 내용을 읽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해준 '매러디스 빅토리' 호의 선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조국이 되도록 온 국민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 공군이 타군과 어떤 연합작전을 펼치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 평택시 이영호 -

#6

무더운 이 여름, 도서관에 예쁘게 꽂혀있는 월간 「공군」. 너무도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 아주 흥미롭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특히 이번호 〈Beauty 바이러스〉에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는 자외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외선, 선크림의 올바른 사용법 등 여성들도 제대로 모르는 여러 가지 피부정보를 Tip으로 알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전남 순천시 전정순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6935, (02) 506-693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8월호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8월호 퀴즈정답

1.

2.

3.



Quiz

월간 「공군」 8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8월 31일까지

1. 1970년대 중반 공군 및 해군 전투조종사 교육을 목적으로 전투조종사들에게 실전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고, 사후 강평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수송기와 공중급유기 등 세계 각국의 공중기동기가 참가해 작전 능력을 겨루는 대회로, 1956년 처음 시작해 1992년부터는 미 공군 기동사령부 주관으로 맥코드 공군기지에서 2년마다 열리고 있는 대회의 명칭은?
3. Shooting Star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1956년부터 1959년까지 Show Flight Team의 주력기종으로 맹활약을 펼치다가 T-59(Hawk) 훈련기를 도입함에 따라 1994년에 퇴역한 비행기종은?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tribune44@gmail.com(인터넷)

tribune44@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935/042-552-6935

※ 6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미국, 호주, 캐나다, 태국, 남아공, 그리스
2. 이근석
3. 메리디스 빅토리호

퀴즈 당첨자

경기도 안산시 김다희

울산시 남구 고진영

전남 여수시 라윤

경기도 평택시 이영호

전남 순천시 전정순

강원도 홍천군 정은주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 : 1337, www.d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



2009.7.17

300번째 공감을 발행하다!!



온라인홍보의 전설
주간공군웹진 공감

<http://news.airforce.mil.kr>